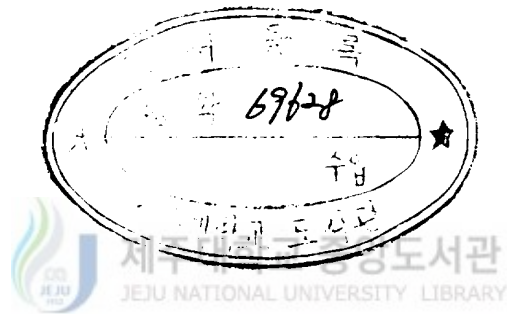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價値觀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安 榮 益

1992年 8月

#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價値觀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安 榮 益



安榮益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宋 成 大   
審査委員 金 恒 元   
審査委員 孔 龍 炯 

## 國文抄錄

본 연구의 目的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價値觀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의 방향과 가치관 교육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소재한 남·여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1040명을 표집하여 家庭觀, 教育觀, 人生觀, 道德觀, 社會觀, 人間觀, 職業觀, 經濟觀 등 8개 영역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백분비와  $\chi^2$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 대한 의식 속에는 靜的價値觀 50.2%, 動的價値觀 32.4%, 中庸的價値觀 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値觀 39.2%, 靜的價値觀 30.5%, 中庸的價値觀 3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인생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値觀 51.5%, 靜的價値觀 25.6%, 中庸的價値觀 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학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에 대한 의식 속에는 靜的價値觀이 47.0%, 中庸的價値觀 30.3%, 動的價値觀 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値觀 48.4%, 靜的價値觀 30.7%, 中庸的價値觀 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만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간에 대한 의식속에는 中庸的價値觀 42.0%, 動的價値觀 34.0%, 靜的價値觀

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만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值觀 51.7%, 中庸的價值觀 35.8%, 靜的價值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만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속에는 中庸的價值觀 42.2%, 動的價值觀 41.1%, 靜的價值觀 16.7% 순으로 나타나 價值葛藤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靜的價值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家庭觀과 道德觀이며 中庸的價值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經濟觀과 人間觀, 動的價值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教育觀, 人生觀, 社會觀, 職業觀 등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5개 영역에서, 학년수준에 따라서는 1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價值探究教育은 제주 특유의 바람직한 전통사회적 성격을 유지시키면서 能率性和 合理性을 중요시하는 발전지향적 인간상의 실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면에서는 價值注入式 타율적 방법이 아닌 價值探究式 자율적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 교육내용면에서는 기존의 가치질서를 유지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치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판단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가치탐구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교육기관, 매스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관에 대한 연구도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目 次

I. 序論.....	1
1. 研究의 目的 .....	1
2. 研究의 制限點 .....	3
II. 理論的 背景 .....	4
1. 價値觀의 概念 定義 .....	4
2. 價値觀의 研究 動向 .....	9
III. 研究의 方法 .....	16
1.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 .....	16
2. 調査道具 .....	19
3. 研究 對象 및 標集 .....	21
IV. 研究 結果 및 論議 .....	23
1. 家庭觀 .....	23
2. 教育觀 .....	30
3. 人生觀 .....	37
4. 道德觀 .....	44
5. 社會觀 .....	50
6. 人間觀 .....	59
7. 職業觀 .....	66
8. 經濟觀 .....	72
V. 要約 및 結論 .....	80
參考文獻 .....	83
英文抄錄 .....	85
附錄 .....	87

## 表 目 次

표1. F.R.Kluckhohn의 價値模型 .....	16
표2. 鄭範模의 價値模型 .....	17
표3. 河石鎬의 統合模型 .....	18
표4.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 .....	18
표5. 調査道具의 構成 .....	20
표6.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	21
표7. 배경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	22
표8. 家族制度 .....	24
표9. 家長의 役割 .....	25
표10. 家長의 機能 .....	26
표11. 家庭에 대한 滿足要因 .....	28
표12. 家庭에 대한 不滿足要因 .....	29
표13. 家庭觀 .....	30
표14. 教育받는 目的 .....	31
표15. 學習의 動機 .....	33
표16. 教育의 成果 .....	34
표17. 尊敬하는 敎師像 .....	35
표18. 敎育觀 .....	36
표19. 人生의 目標 .....	38
표20. 生의 보람 .....	39
표21. 幸福과 不幸 .....	41
표22. 生活의 信條 .....	42
표23. 人生觀 .....	43
표24. 老父母 奉養 .....	45
표25. 어른 恭敬 .....	46
표26. 長幼有序 .....	47

표27. 罪와 罰 .....	49
표28. 道德觀 .....	50
표29. 韓國人으로서의 矜持(滿足要因) .....	51
표30. 韓國人으로서의 矜持(不滿要因) .....	53
표31. 社會的 成功 .....	54
표32. 理想的 社會 .....	55
표33. 社會에 대한 滿足要因 .....	57
표34. 社會에 대한 不滿要因 .....	58
표35. 社會觀 .....	59
표36. 自然 對 人間 .....	60
표37. 男女平等 .....	62
표38. 交友關係 .....	63
표39. 約束尊重 .....	64
표40. 人間觀 .....	65
표41. 職業의 必要性 .....	67
표42. 職業의 選擇 .....	68
표43. 일의 選擇 .....	69
표44. 職業의 實踐 .....	71
표45. 職業觀 .....	72
표46. 勤儉生活 .....	73
표47. 돈의 價値 .....	74
표48. 돈에 대한 欲求 .....	76
표49. 貯蓄生活 .....	77
표50. 經濟觀 .....	78

## 그림 目 次

그림1. 價値觀의 포괄 관계 .....	5
그림2. 動因, 動機, 態度, 價値觀의 상관관계 .....	5

# I . 序 論

## 1.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産業化 時代를 맞으면서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눈부신 國力の 伸張과 함께 국민 모두의 자부심을 크게 증대시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속에서 개방적인 서구 産業社會의 문화가 유입됨으로써 社會的 犯罪의 심각화, 物質萬能主義의 팽배, 拜金主義 및 利己主義의 만연 등 價値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늘날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되어 있는 많은 부조리는 價値觀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개방과 함께 과학문명의 발달, 국제관계의 발전, 정치상황의 변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예측 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복합구조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價値觀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價値觀은 행동의 원천이며 행동선택의 기준으로서 개인의 여러 행동을 통합하여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sup> 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그 사회성원간에 協同을 가능케하는 큰 공통적인 문화와 균형있는 價値觀의 作用이 절실히 요청된다.<sup>2)</sup> 價値觀은 사람의 동기와 포부, 評價基準, 理念, 信念, 知覺과 解析, 인생의 어디에서 만족과 意義를 얻느냐 하는 문제에 直結되어 있다. 또한

1 ) 車京守(1977), 「産業社會의 敎育問題」, 배영사, pp.114-115.

2 ) K.Davis(1947), *Human Society*, The Macmillan Co., p.114.



價値觀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동의 방향 선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의식 형성에 있어 불가결한 요인과 사회적 행동을 위한 動機를 부여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發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價値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생활에 어떤 지표가 없고 여러가지 선택요인들 중에서 어느것도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價値觀은 문화를 달리하는 사회마다 다르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회 안에서도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다르다. 특히 제주도는 급속한 관광산업의 발달로 최근에는 외래 관광객 수가 1년에 300만명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발달로 전통 윤리가 약화되고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풍양속도 많이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범죄문제와 가치관의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고등학생들의 價値觀을 研究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다. 또한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必要한 研究이다.

현대 우리의 사회는 학교의 팽창, 매스컴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소득의 상승, 생활의 기계화,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身體的, 心理的, 社會的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한 고등학생들은 심각한 가치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의 주인이 될 고등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것은 國家 社會的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본 研究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價値觀 實態를 調査 分析하여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의 방향과 價値觀 敎育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가치관에 대한 理論的 背景과 研究의 動向을 고찰하고 클라크 혼(F.R.Kluckhohn)의 價値指向 理論과 鄭範模의 價値觀 理論을 모델로 하여 연구한 바 있는 河石鎬의 模型<sup>3)</sup>을 참고로 하여 제주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家庭觀, 教育觀, 人生觀, 道德觀, 社會觀, 人間觀, 職業觀, 經濟觀 등을 조사 분석, 그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價値觀 形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 2. 研究의 制限點

1) 本 研究의 対象을 제주시 소재한 4개 고등학교와 서귀포시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한정하였기 때문에 研究結果를 一般化하는데는 限界가 있다.

2) 많은 價値觀의 요인 중 8개 領域에 한하여 32개의 問項을 가지고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3) 本 研究는 質問紙로만 調査하였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갖는 한계<sup>4)</sup>를 무시할 수 없다.

3) 河石鎬(1982), “中學生의 意識속에 나타난 價値觀에 관한 一考察,”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4) 金蘭洙(1966), 「教育調査의 技術」, 現代教育叢書出版社, pp. 69-70.

언어적 능력, 독해력 및 書寫力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제한을 받는다. 편파적이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질 위험이 있다. 親和性 수립이 어렵다. 응답의 정확성 및 信賴度를 측정하기 어렵다.

## II. 研究의 理論的 背景

### 1. 價値觀의 概念 定義

價値觀에 관한 研究는 哲學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 文化人類學, 心理學 영역에서도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도 어느 한 영역에 속하지 않고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sup>5)</sup> 따라서 價値 및 價値觀의 概念定義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가치관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가치관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인간의 心理的인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價値와 價値觀의 定義를 보면 價値와 價値觀은 根本的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價値觀을 價値보다 더 넓고 包括的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金大潤은 價値觀은 어떤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의 심리적 속성으로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일관성 있고 인생에 內面化되어 조직화된 개념이다.<sup>6)</sup> 라고 하여 그림1과 같이 가치관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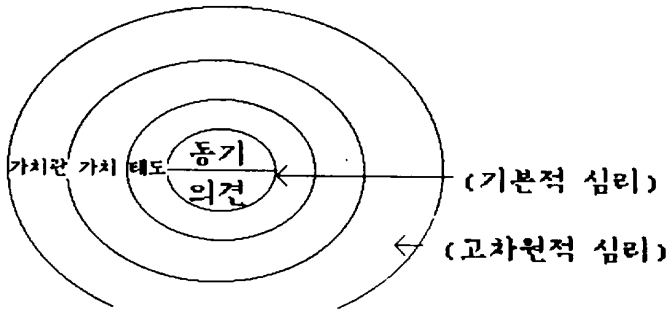
그림1에서 원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본적 심리요인으로 개념이 형성되며 밖으로 갈수록 포괄적인 성질을 가진 상위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價値觀은 관련된 모든 개념들의 최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5) 李乘珠(1990), “高校生과 學父母의 價値觀에 관한 比較 研究,” 碩士學位論文, 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 p. 6.

6) 金大潤(1984), “高等學生들의 價値觀 變遷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p. 23.

그림 1 價値觀의 포괄관계.



鄭世九는 價値와 價値觀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서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간가치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뉴콤(T.M Newcomb)은 價値觀이란 行動標準 혹은 종합적 태도의 대상이 되는 目標 내지 標準이다.<sup>8)</sup> 라고 정의하여 人間의 態度를 방향짓고 결정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유사한 개념인 動因, 動機, 態度와의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動因·動機·態度·價値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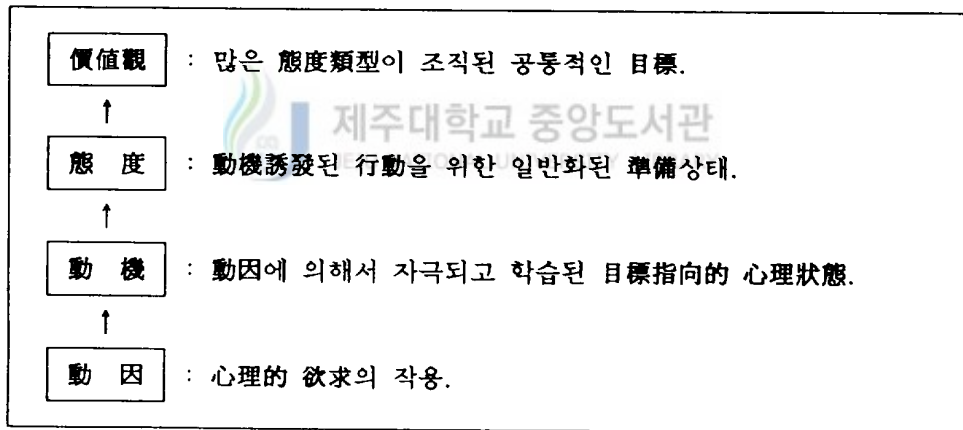


그림2에 의하면 動因이 시발점이 되고 가치관은 최종의 단계 또는 높은 수준

7) 鄭世九(1988), 「價値·態度 教育의 理論과 實際」, 培英社, p.10.

8) T. M. Newcomb(1950), *Social Psychology*, Holt, Rinehart & Winston, p.130.

의 단계의 순으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화살표가 시사하듯이 行動性向을 결정하는 원점이 生理的 欲求로 구성된 動因의 작용으로 動機에 자극을 주어 어떤 방향성을 갖는 行動性向인 動機를 形成하게 되고, 다음은 특정의 사물이나 사태에 반응할 준비상태로 태도가 형성되며 이들 태도군에 공통된 목표가 최종단계인 價値觀을 형성하게 된다.

金鐘喆은 가치관이란 행동의 목적·수단·방법 등에 관하여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sup>9)</sup>

朴容憲은 가치관의 공통점을 첫째, 문화적 산물이지만 이는 개인의 학습을 통해서 內面化되어 動機가 작용하고 둘째, 개인의 심리적 체계에 內面化 되어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셋째,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標準·理想 내지는 信念으로서 이 理想 내지 信念은 개인의 심리적 조직을 체계화하여 행동통일을 이룩하고 안전을 가져오게 하여 사회적 통합과 안전에 극히 필요한 것이다.<sup>10)</sup> 라고 하였다.

윌리엄스(R. M. Williams)는 가치를 「좋다 - 나쁘다」,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못하다」등의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상황, 사건 또는 사물을 지적하는 용어라고 전제하고 그 개념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sup>11)</sup> 첫째, 價値는 概念的 요소로서 感覺, 情緒, 欲求 등의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즉, 가치는 각 개인의 여러 경험에서 抽象되는 것이다. 둘째, 價値는 구체적인 행동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價値는

9 ) 金鐘喆(1970), 「教育行政의 理論과 實際」, 科學教育社, p. 26.

10 ) 朴容憲(1970), 「態度와 價値觀의 研究」, 培英社, p. 125.

11 ) R. M. Williams(1952), 「American Society」, Alfred A. Knopf, pp. 374-375.

情意的인 특성이 강하다. 즉 價値는 감정이 현실적 및 잠재적인 動員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네째, 價値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결국 그는 價値를 人間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의무로 느끼는 것, 숭배하고 싶은 것 등을 포함하는 모든 관심의 대상이며 人間 行動의 조직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意義 깊은 성질을 띤 規範原理라고 지적하고 있다.

클라크 혼(F. R. Kluckhohn)과 스트룟벡(Strodbeck)은 價値觀을 부단히 계속되는 人間行動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와 방향을 주며 공통적인 인간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을 주는 것으로써, 分析的으로 구별할 수 있는 評價 과정의 세 요소, 즉 認知的, 情意的, 方向的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리이며 이러한 평가과정은 공통된 인간 문제의 이해에 관련되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간행위와 思考에 대하여 질서와 방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2)</sup>

李鍾昇은 「좋다 - 나쁘다」, 「옳다 - 그르다」 혹은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판단에 관련된 준거가 가치이며, 이와 같은 가치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질서와 방향을 갖고 一貫性 있게 나타나도록 조직된 체계가 價値觀이라고 정의하였다.<sup>13)</sup> 이는 윌리엄스(R. M. Williams)의 價値概念과 유사하다.

밀튼 로키치(M. Rokeach)는 價値를 특정한 행동의 양식이나, 存在의 궁극적 목적이 그것과 반대 혹은 逆이 되는 행동양식과 존재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다 바람직하다는 지속적인 信念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4)</sup>

12 ) F. R. Kluckhohn & F. L. Strodbeck(1961),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Row, Peterson and co., p. 41.

13 ) 李鍾昇(1980), “大學生的 價値意識에 관한 調査 研究,” 忠北大學校 生活 研究所, p. 2.

14 ) M. Rokeach(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Free Press, p. 5.

퍼슨스와 실츠(Parsons & Shills)는 價値觀이란 행동의 양식이나 존재가치를 의미하며 그 重要性에 따라 위계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5)</sup>

李乘珠는 價値를 是非, 善惡, 正否의 판단에 관련된 준거라고 할 수 있고, 價値觀을 개인 또는 집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우선성을 부여하여 일정한 方向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직화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6)</sup> 黃禎奎도 價値를 情意的인 성질을 띤 속성으로서 是非, 善惡, 正否, 適否의 판단적 방향을 갖는 개인의 내면화된 文化規範으로 그리고 價値觀을 이러한 價値가 여러가지 사태에서 어떤 방향감각을 가지고 一貫性있게 內顯하도록 일반화 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7)</sup>

鄭範謨는 價値觀을 여러가지 人間問題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sup>18)</sup> 이라고 하였으며, 陳元重은 價値란 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질 또는 사실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sup>19)</sup>

申鉉大는 價値觀이란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물이나 行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心理的 傾向으로써 인간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혹은 그것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와 評價基準이라고 하였다.<sup>20)</sup>

---

15 ) T. Parsons & E. A. Shills(1962),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Harper & Row)을 인용한 文龍麟 “價値觀의 測定 및 評價,” 「정의적 특성의 평가방법」, 중앙교육평가원, p.168에서 再引用.

16 ) 李乘珠(1990), 前掲書, p.11.

17 ) 黃禎奎(1972), 「教育 評價」, 교육출판사, p.614.

18 ) 鄭範模(1973), 「價値觀과 教育」, 培英社, p.25.

19 ) 陳元重(1972), 「教育社會學原論」, 法文社, p.90.

20 ) 申鉉大(1989), “忠清北道 高等學生의 價値觀 研究,” 碩士學位論文, 忠南大 學校 教育大學院, p.14.

金仁子和 黃應淵은 價値觀의 定義 가운데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sup>21)</sup> 첫째, 價値觀은 문화적인 산물이나 개인의 학습을 통하여 內面化되어 작용한다. 둘째, 개인의 心理的 體系에 內面化되어 動機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셋째,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評價的 基準이다. 넷째,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心理的 組織을 체계화하여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價値觀의 概念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價値觀이란 動機, 態度, 價値의 가장 포괄적인 상위의 心理的 반응의 傾向으로서 사람들의 어떤 사물이나 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에 관한 필요성의 정도와 評價基準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 2. 價値觀의 研究 動向

價値觀에 관한 研究는 國內外的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國外的 가치관의 연구는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人類學에서 활발히 論議되었다.<sup>22)</sup>

C. 클라크혼(1951), F. 클라크혼과 스트로트백(Strodbeck, 1961), 그리고 카우딜과 스캐르(Caudill & Scarr, 1962)등이 代表者 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가치관 연구의 기본적인 틀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心理學에서는 人類學者들 만큼 가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心理學에서는 가급적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動機, 欲求,

21 ) 金仁子, 黃應淵(1974), “韓國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社會問題研究所, p. 8.

22 ) 文龍麟(1987), 前掲書, pp. 164-166.



衝動, 興味, 態度 등의 概念을 選好하였기 때문이다. 시프랭거(Spranger, 1928)는 인간의 유형을 여섯가지의 價値志向性 즉 이론형, 심미형, 종교형, 사회형, 정치형, 실제형으로 나누었다. 스코트(Scott, 1965)는 이 여섯가지에 몇 가지 價値項目을 추가하여 14개 유형으로 만들었다. 그 후 올포트(Allport), 바아논(Vernon), 그리고 린제이(Lindzey, 1951)는 시프랭거의 가치유형을 더 세련화하여 AVL 價値尺度를 개발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 와서는 퍼슨스와 실스(1962), 스피들러(Spindler, 1968), 그리고 로키치(Rokeach, 1973)등은 社會科學 分野에서 價値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다.

價値에 대한 실증과학적 연구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페리(Perry, 1926)와 모리스(Morris, 1956)등이 있다. 이들은 가치를 形而上學的 思辨의 주제로서만 다루지 않고 經驗的 研究의 對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리스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노르웨이 등의 大學生들의 “인생의 보람”에 대한 價値志向性을 비교 분석하였다(1956).

클라크혼 등은 미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5개의 상이한 문화 (Morman, Texas, Spanish-American, Zuni, Navaho)가 가지는 價値觀에 관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의 다섯가지의 가치지향을 밝혔다. 즉 人間本性觀을 惡, 中性, 善으로, 人間 對 自然觀을 從屬, 調和, 征服으로, 時間觀을 過去, 現在, 未來로, 活動觀을 存在, 修養, 成就로, 對人關係觀을 縱的, 橫的, 個人主義로 구분 조사하였다(1961).

A V L (Allport-Vernon-Lindzey)의 價値觀檢査(1951)는 시프랭거의 가치유형 구분을 이론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종교적 가치, 심미적 가치, 경제

적 가치로 나누고 있다. 한 개인은 이 6가지 가치에 대한 선호는 位階를 이루고 있다고 보며 어떤 사람은 이론형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형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맥그레거(McGregor)의 인간관 測定 質問紙에 의한 검사는 맥그레거의 X,Y 이론에 근거하여 人間觀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는 보수적이고 전체적인 人間觀을 X 理論과 前進的이고 협조적인 人間觀을 Y 理論으로 양분하여 조직 경영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개념체제를 개발하였다. 또 학교행정가 교사에게도 적용하여 교육풍토 또는 교육성과와 관련지워 보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스핀들러(1968)는 사회적 價値로서의 행동규범을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두 가지 次元으로 나누고 그를 다시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가치관에는 絶對的 道德性, 立身揚名, 個人中心, 成就指向性, 未來指向 등이 포함되고 새로운 가치관에는 相對的 道德性, 他人中心, 社會性, 集團性, 現在指向性 등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들은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60년대 이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洪承稷(1969)은 모리스(Morris)가 분류한 作用的 價値, 客觀的 價値, 觀念的 價値 중에서 관념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家庭價値觀, 經濟價値觀, 政治價値觀, 社會價値觀, 宗教價値觀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피고 態度尺度에 관계있는 문항을 다시 뽑아서 전통성, 비전통성 尺度로 재었다.<sup>23)</sup> 또 그는 교수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知識人의 태도와 役割을 밝히고 있다.<sup>24)</sup>

23 ) 洪承稷(1969), "韓國人的 價値觀 研究," 「韓國社會科學研究」 제 10권, 아세아 문제 연구소.

24 ) ——— (1972), 「知識人的 價値觀 研究」, 三英社.

申憲植(1970)은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에서 고교생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道義教育 및 생활지도 방법을 재 검토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가치관을 5個 領域으로 구분, 서울시내 高校生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sup>25)</sup> 이를 요약하면 전통적 가족관은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냈고, 학교사회에 대한 태도는 중용적 가치관을, 일반사회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生活觀 및 職業觀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민족관 및 국가관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 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趙鏞振, 洪德昌(1975)은 공무원, 상업, 농업, 공업, 교원, 자유업 그리고 대학생 등을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국가관, 사회관, 가족관, 개인출세관, 결혼관, 윤리 가치관, 인성관, 가정의례 준칙과 새마을 사업 및 반공정신에 대한 태도 등 10개 영역 34문항에 의하여 조사하였다.<sup>26)</sup>

朴賢淑(1976)은 여고생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농촌에서 각각 人文系, 實業系 고등학교를 2개교씩 임의선정, 2학년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分析하였다.<sup>27)</sup> 그 분석 결과는 전통적인 意識과 근대적인 혼돈 속에서 새로운 價値觀을 이루려는 모습이 뚜렷이 엿보이고 있으며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낡은 女性觀에서 크게 탈피하여 民主市民으로서 또는 國家構成의 一貫으로써의 긍정적인 價値觀을 갖고 있었다.

25 ) 申憲植(1970),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26 ) 趙鏞振, 洪德昌(1975), “忠南地域 住民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論文集」, 2권 1호, 忠南大 人文科學研究所.

27 ) 朴賢淑(1976), “韓國 女高生의 價値觀,”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教育大學院.

李琦勳(1980)은 고교생의 價値觀 研究에서 고교생들의 긍정적 가치와 手段的 價値의 순위를 서울시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하였다.<sup>28)</sup> 이를 요약하여 보면 긍정적 가치 18개에 대해서는 행복, 우정, 가족의 안정, 성숙한 지혜, 내적인 조화, 自我尊重, 자유, 美의 세계, 성숙한 사랑, 평화, 즐길 수 있는 인생, 成就感, 평등, 안락한 인생, 국가의 安保, 활동적인 인생, 사회적 존경과 칭찬, 靈的 구원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手段的 價値 18개에 대해서는 정직성, 책임감, 높은 포부, 야망, 자율성, 지성, 창의성, 자주성, 유능성, 寬容性, 봉사성, 예절성, 용맹성, 애정, 쾌활성, 청결성, 윤리성, 순종성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國家의 安保에 대한 순서가 15위로 낮은 것과, 자유 평등에 대한 소망의 순위가 중위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국가나 사회, 민족보다는 자기 개인, 자기 가족 중심의 個人主義의 사고방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金泰吉(1982)은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에서 가치의 근거를 찾으려는 心理學的 價値說이 모든 주관을 떠나 가치가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實在論的 가치설보다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인간 또는 인간 밖의 어떤 有情者의 情意를 떠나서는 가치의 세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 인간의 욕구 내지 의지는 가치의 근원의 일부라고 하였다.<sup>29)</sup>

姜大烈(1985)은 청소년의 價値觀에 대한 比較 調査 研究에서 전국 高等學校 學生들과 中西部 경남지역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을 國家意識, 倫理意識, 家庭生活과 意識, 學校生活과 意識, 勤勞 및 職場意識, 個人生活과 意識, 餘暇生活과 意識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하였다.<sup>30)</sup>

28 ) 李琦勳(1980), “高校生の 價値觀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29 ) 金泰吉(1982), 「韓國人의 가치관 연구」, 文音社, pp.109-111.

30 ) 姜大烈(1985), “青少年들의 價値觀에 대한 比較 調査 研究,” 碩士學位論文,

이를 요약하면, 국가의식은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의식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퇴색 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정생활과 意識은 가정생활에서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대화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意識은 상고생이 전국의 학생보다 불만인 쪽에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승관은 인간적인 선생님을 바라고 있다. 勤勞 및 직장의식은 才能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어 건전한 價値觀을 보이고 있다. 개인생활에서의 의식은 利己主義의인 경향을, 생활의 만족도에서는 불만인 쪽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여가관은 대체로 肯定的이었으나 여가 활동은 여가시설의 부족으로 健全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乘珠(1990)는 高校生과 學父母의 價値觀에 관한 비교 연구라는 논문에서 클라크혼의 價値觀 模型을 모델로 하여 경남 서부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가치관을 人間本性觀, 人間對自然觀, 活動觀, 人間關係觀, 時間觀 등 5가지 영역에 대하여 지역별, 계열별, 성별에 따라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의 가치지향성의 類似性和 差異點을 밝혔다.<sup>31)</sup>

그는 여기에서 학생과 학부모들간에는 인간본성관, 인간 대 자연관, 활동관, 인간관계관, 시간관 등의 가치의식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한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대화 기회 확대, 社會的 분위기 조성, 매스컴의 건전한 내용 보도 그리고 特히 학교 교육에서 意圖的인 교육작용이 이루어 져야

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31 ) 李乘珠(1990), 前掲書, 요약.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價値觀의 研究는 國內外的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價値觀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價値觀의 研究는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III. 研究의 方法

#### 1.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

價値觀 研究에서의 價値觀 分類 模型은 研究의 대상 또는 研究의 方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클라크혼(F.R.Kluckhohn)의 모형과 鄭範謨의 모형, 河石鎬의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클라크혼(F.R.Kluckhohn)의 價値模型.

클라크혼을 중심으로 한 하버드 대학의 사회관계 연구실은 1949년 부터 1954년에 걸쳐 New Mexico의 같은 生態學的 地域에 살고 있는 다섯의 文化(Marman, Texas, Spanish-American, Zuni, Navaho)가 가지는 價値觀에 관한 綜合的 調査를 施行하였다. 이 調査에서 다음 표1과 같이 다섯 가지의 價値志向 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F. R. Kluckhohn의 價値模型.

志向性	多樣性的 基本的인 範圍		
人間本性觀	惡	中性	善
自然觀	從屬	調和	征服
時間觀	過去	現在	未來
活動觀	存在	修養	成就
對人間關係觀	縱的	橫的	個人主義的

클라크혼의 價値模型의 장점은 價値變化의 模型을 토대로 하여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급속하게 社會變化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훌륭한 研究模型이

될 수 있으며, 汎文化的 적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이 모형에 의하여 서양 사회와 다른 사회를 비교하는 경우 모순이 있게 되며, 자연을 정복하고 未來志向의 가치관이 오늘의 사회를 이룩했지만 자연과 조화하고 過去志向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다 더 행복한지 여부는 論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클라크혼의 價値模型을 선호하고 있다.

### 2) 鄭範謨의 價値模型.

鄭範謨는 價値觀의 방향을 전통과 발전이라는 두 방향에서 고찰하면서 자연에 대한 價値觀을 混沌觀, 秩序觀, 變化觀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從屬觀, 調和觀, 主體觀으로 時間的인 가치관을 過去指向, 現在指向, 未來指向으로, 인생에 대한 價値觀을 修養觀, 快樂觀, 活動觀으로, 사회에 대한 價値觀을 縱的, 橫的, 個人主義的 價値觀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價値觀들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클라크혼의 모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鄭範謨의 價値模型. 중앙도서관

價 値 觀	價 値 志 向		
自然에 대한 價値觀	混 沌 觀	秩 序 觀	變 化 觀
自然과 人間과의 관계	從 屬 觀	調 和 觀	主 體 觀
時 間 的 인 價値觀	過 去 指 向	現 在 指 向	未 來 指 向
人 生 에 對 한 價値觀	修 養 觀	快 樂 觀	活 動 觀
社 會 에 對 한 價値觀	縱 的	橫 的	個 人 主 義 的

### 3) 河石鎬의 價値模型.

河石鎬는 클라크혼의 모형과 鄭範謨의 모형을 토대로 하여 3극 지향 통합모형



을 만들어 연구한 바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河石鎬의 統合模型.

志向性	靜的 價値觀	中庸的 價値觀	動的 價値觀
人間本質 志向性	인간의 本性을 善으로 본다.	인간의 本性을 中性으로 본다.	인간의 本性을 惡으로 본다.
人間對自然 志向性	인간을 自然의 隸屬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自然과의 調和的 존재로 본다.	인간을 自然支配의 主體로 본다.
人間關係 志向性	인간관계의 가치 기준을 權威, 縱的 관계에 둔다.	인간관계의 가치 기준을 平等, 橫的 관계에 둔다.	인간관계의 가치기준 을 個人主義에 둔다.
時 間 志向性	가치기준을 傳統 에 둔다.	가치기준을 현재의 成就, 完成에 둔다.	가치기준을 未來의 成就, 發展에 둔다.
活 動 志向性	인간행동의 목표 및 양식의 기준을 克己, 修養에 둔다.	인간활동의 目標 및 양식의 기준을 克己 의 만족에 둔다.	인간활동의 目標 및 양식 의 기준을 未來의 성취 발전을 위한 活動에 둔다.

4)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

위에서 살펴 본 모형들과 河石鎬의 분석모형을 참고로 본 연구의 分析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4와 같이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을 만들었다.

표 4.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

價値模型		價値志向		
統合模型		靜的 價値觀 ↓	— 中庸的 價値觀 ↓	— 動的 價値觀 ↓
문항에 내포된 관련 모델	自然觀	順應觀	— 調和觀	— 主體觀
	人間關係觀	權威·從的관계	— 平等·橫的관계	— 個人主義
	活動觀	克己·修養觀	— 快樂觀	— 活動觀
	時間觀	過去指向 ↓	— 現在指向 ↓	— 未來指向 ↓
答紙配列		①	②	③

본 研究에서는 8개의 價値觀 領域 즉, 家庭觀, 敎育觀, 人生觀, 道德觀, 社會觀, 人間觀, 職業觀, 經濟觀 영역에 대하여 각각 4개의 질문 내용으로 문항을 작성 하였으며, 4개의 문항에 내포된 相關 모형 즉, 自然觀, 人間關係觀, 活動觀, 時間觀 중 어느 한 모형에 相關되는 3개의 答紙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질문 내용은 문항에 내포된 相關모형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영역별 가치관은 統合模型에 의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統合모형을 한 모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 한 가정에서 몇 代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

- ① 3대                      ② 2대                      ③ 1대

여기서 문항에 내포된 相關모형은 人間關係觀으로써 ①은 權威、從的 關係이면서 統合模型에서는 靜的 價値觀에 ②는 어느정도 橫的 關係이면서 統合模型에서는 中庸的 價値觀에 ③은 個人主義的 關係이면서 統合模型에서는 動的 價値觀에 해당 된다.

## 2. 調查道具



價値觀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작성 사용하였는데, 질문지는 앞에서 살펴 본 F. 클라크혼의 가치모형과 鄭範謨의 가치모형을 참고로 하여 河石鎬(1982)가 작성 사용하였던 질문지를 본 연구 내용에 적합하도록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 하였다. 질문내용은 8개의 價値觀 영역에 대하여 각각 4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이미 사용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本檢査를 바로 실시하였다. 調查道具의 구성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 5과 같다.

표 5. 조사도구의 구성.

가치관 領域	質 問 內 容	答紙에 내포된 價値觀	문항번호	문항수
家庭에 대한 意識 (家庭觀)	가족제도 가장의 역할 家庭의 機能 家庭에 대한 만족, 불만족 요인	人間關係觀 人間關係觀 活動觀 活動觀	1 2 3 4-1,2	4
教育에 대한 意識 (教育觀)	教育받는 目的 學習의 動機 教育의 성과 존경하는 教師像	活動觀 人間關係觀 自然觀 人間關係觀	6 7 8 9	4
人生에 대한 意識 (人生觀)	人生의 目標 生의 보람 행복과 불행 생활 신조	活動觀 活動觀 自然觀 活動觀	10 11 12 13	4
道德에 대한 意識 (道德觀)	노부모 供養 어른 공경 長幼有序 죄와 벌	人間關係觀 人間關係觀 人間關係觀 人間關係觀	14 15 16 17	4
社會에 대한 意識 (社會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社會의 성공 이상적 사회 제주도 社會에 대한 만족, 불만족 요인	時間觀 時間觀 時間觀 自然觀	18-1,2 20 21 22-1,2	4
人間에 대한 意識 (人間觀)	自然 對 人間 남녀평등 교우관계 약속존중	自然觀 人間關係觀 活動觀 人間關係觀	24 25 26 27	4
職業에 대한 意識 (職業觀)	職業의 필요성 職業의 선택 일의 선택 職業의 귀천	活動觀 活動觀 活動觀 時間觀	28 29 30 31	4
經濟生活에 대한 意識 (經濟觀)	근검생활 돈의가치 돈에 대한 욕구 저축생활	活動觀 活動觀 活動觀 時間觀	32 33 34 35	4

### 3. 研究 對象 및 標集

本 研究의 對象은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였다.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 2개 고등학교, 실업계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 2개 고등학교와 서귀포 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 2개교, 실업계 남.여 고등학교 1개교씩 2개 고등학교 등 인문계 4개 고등학교와 실업계 4개 고등학교, 총 8개 고등학교를 無作為 抽出로 標集學校를 선정하였다. 質問紙는 1992.3.10부터 3.20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표집할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 연구주임,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실시 회수하였다.

回收率을 보면 선정된 학교의 재학생 1.2.3학년 1학급씩을 無作為로 선정하여 1학급에 50부씩 총 1200부를 배부하여 실시한 후 1139부를 회수, 94.9%의 회수율을 보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학 년 별			지역별.계열별				성별		전체
	1	2	3	제주시		서귀포시		남	여	
				인문계	실업계	인문계	실업계			
배부수	400	400	400	300	300	300	300	600	600	1200
회수수	383	371	385	274	298	284	283	576	563	1139
회수율	95.8	92.8	96.3	91.3	99.3	94.7	94.3	96.0	93.8	94.9

質問紙의 응답결과를 통계 처리하기 위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 응답이 빠진 것이 있는 질문지나 한 문항에 2개 이상씩 응답을 한 질문지 99부를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로 연구의 대상이 된 인원수는 1040명이다. 이를 배경 변인별로 보면

표7과 같다.

표 7.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배경 변인	변인 구성	집단	변인 구성비 (%)	계
1. 성별	남	523	50.3	1040
	여	517	49.7	
2. 학년별	1	356	34.2	1040
	2	339	32.6	
	3	345	33.2	
3. 종교별	불교	341	32.8	1040
	천주교	92	8.8	
	기독교	168	16.2	
	무교	402	38.6	
	기타	37	3.6	

자료의 처리는 제주대학교 전산소의 컴퓨터로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百分比(%)와  $\chi^2$ 檢證을 사용하였다.



## IV. 研究 結果 및 論意

本 研究의 주된 目的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價値觀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價値觀 형성의 方向과 價値觀教育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가치관의 영역별 분석 및 배경변인에 따라 성별, 학년별, 종교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는 앞에서 제시된 “분석을 위한 가치모형”에서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에 따라 가치지향의 실태를 문항별로 分析하고 다음은 통합모형에 의하여 價値觀의 영역별로 4문항씩 종합하여 가치지향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별 분석과 통합모형에서의 가치관 영역의 종합 분석은 배경 변인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百分比(%)와  $\chi^2$ 檢證을 하였다.

### 1. 家庭 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의식속에 나타난 價値指向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家族制度, 家庭의 役割, 家庭의 機能, 家庭에 대한 滿足, 不滿足의 要因 등의 內容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家族制度

가족제도에 대하여 가치지향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가정에서 몇 대가 사는 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인간관계관이며, 答紙 ① 3대를 權威, 縱的關係指向, ② 2대를 平等, 橫的關係指向, ③ 1대를 個人主義 指向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표8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平等·橫的 關係指向에 응답한 학생이 46.2%, 個人主義 指向에 응답한 학생이 31.8%, 權威·縱的 關係指向에 응답한 학생이 2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家族 制度.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22.0(229)	46.2(480)	31.8(331)			
성별	남	50.3 (523)	8.937	2	* 0.011	25.4(133)	42.3(221)	32.3(169)			
	여	49.7 (517)							18.6( 96)	50.1(259)	31.3(162)
학년별	1학년	34.2 (356)	6.198	4	0.184	21.9( 78)	49.2(175)	28.9(103)			
	2학년	32.6 (339)							22.1( 75)	47.8(162)	30.1(102)
	3학년	33.2 (345)									
종교별	불교	32.8 (341)	5.409	8	0.713	24.1( 82)	44.3(151)	31.7(108)			
	기독교	8.8 (92)							17.4( 16)	48.9( 45)	33.7(108)
	기독교(개신교)	16.2 (168)									
	무교	38.6 (402)							23.1( 93)	47.0(189)	29.9(120)
	기타	3.6 (37)									

\* p<0.05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p<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縱的 關係指向에는 여학생(18.6%)보다 남학생(25.4%)이 높게, 橫的 關係指向에는 남학생(42.3%)보다 여학생(50.1%)이 높게, 個人主義 指向에서는 남·여 비슷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년별로는 個人主義 指向에만 고학년일수록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有意한 차이는 없다. 종교별로는 전반적으로 有意한 차이는 없으나 個人主義 指向 에서 무교(29.9%)가 낮은 반면 기타교(40.5%)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家長의 役割

가장의 역할에 대한 의식에는 어떤 가치지향이 나타나는가를 알기 위하여 “아버지(어머니)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2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 모형은 人間關係觀이며 答紙 ①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응답한 학생은 權威·縱的關係指向, ②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응답한 학생은 平等·橫的關係指向, ③우리들을 믿고 간섭하지 않는 일에 응답한 학생은 個人主義指向으로 본다.

표 9. 家長의 役割.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51.7(538)	5.1(53)	43.2(449)
성별	남	50.3 (523)	2.214	2	0.330	49.5(259)	5.2(27)	45.3(237)
	여	49.7 (517)				54.0(279)	5.0(26)	41.0(212)
학년별	1학년	34.2 (356)	7.245	4	0.123	52.8(188)	6.7(24)	40.5(144)
	2학년	32.6 (339)				54.6(185)	3.5(12)	41.9(142)
	3학년	33.2 (345)				47.8(165)	4.9(17)	47.2(163)
종교별	불교	32.8 (341)	7.250	8	0.509	51.3(175)	5.9(20)	42.8(146)
	천주교	8.8 (92)				54.3( 50)	6.5( 6)	39.1( 36)
	기독교(개신교)	16.2 (168)				54.8( 92)	2.4( 4)	42.8( 72)
	무교	38.6 (402)				51.0(205)	4.7( 19)	44.3(178)
	기타	3.6 (37)			43.2( 16)	10.8( 4)	45.9( 17)	

표9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縱的關係指向에 응답한 학생이 51.7%, 個人主義指向에 응답한 학생이 43.2%, 橫的關係指向에 응답한 학생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과 학년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縱的關係指向에서 기타교가 약간 낮은 반면 橫的關係指向에서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家庭의 機能

가정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3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 모형은 活動觀이며, 答紙 ①마음의 평안을 얻는 보금자리다를 修養觀, ②의식주가 해결되는 생활의 터전이다를 快樂觀, ③사회생활의 기초를 익히는 배움의 터전이다를 活動觀으로 본다.

표 10. 家庭의 機能.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74.1(771)	12.0(125)	13.9(144)			
성별	남	50.3 (523)	1.209	2	0.546	72.7(380)	12.6(66)	14.7(77)			
	여	49.7 (517)							75.6(391)	11.4(59)	13.0(67)
학년별	1학년	34.2 (356)	7.247	4	0.123	71.3(254)	11.5(41)	17.2(61)			
	2학년	32.6 (339)							73.2(248)	13.0(44)	13.8(47)
	3학년	33.2 (345)							78.0(269)	11.6(40)	10.4(36)
종교별	불교	32.8 (341)	6.317	8	0.611	74.8(255)	11.1(38)	14.1(13)			
	천주교	8.8 (92)							73.9(68)	12.0(11)	14.1(13)
	기독교(개신교)	16.7 (168)							76.8(129)	9.5(16)	13.7(23)
	무교	38.6 (402)							73.4(295)	13.9(56)	12.7(51)
	기타	3.6 (37)							64.9(24)	10.8(4)	24.3(9)

표10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縱的關係指向이 74.1%, 個人主義指向 13.9%, 橫的關係指向이 12.0% 순으로 縱的關係指向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는 없으나 縱的關係指向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個人主義指向은 저학년일수록 약간 높게 반응하고 있다. 종교별에 따라서는 기타교가 縱的關係指向에서 약간 낮게, 個人主義指向에서는 기타교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有意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家庭에 대한 滿足, 不滿足 要因

가정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런 이유중에서,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런 이유중에서 한쪽에만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활동관이며, 答紙 ①은 修養觀, ②는 快樂觀, ③은 活動觀으로 본다.

이에 대한 반응을 표11, 12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다는 학생이 71.9%, 불만족스럽다는 학생이 28.1%로 만족스럽다는 쪽에 높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1을 보면 만족스럽다는 이유 중 가족이 화목하기 때문이라는 修養觀에 61.4%, 생활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이라는 活動觀에 32.5%, 가족이 나를 믿어주므로 라는 快樂觀에 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쾌락관에서 1학년이 약간 낮게 반응하고 있으나 수양관과 활동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별로는 有意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불교가 수양관에서는 약간 낮게, 활동관에서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家庭에 대한 滿足 要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71.9 (748)				61.4(459)	6.1(46)	32.5(243)
성별	남	51.7 (387)	0.724	2	0.696	60.2(233)	6.7(26)	33.1(128)
	여	48.3 (361)				62.6(226)	5.5(20)	31.9(115)
학년별	1학년	35.4 (265)	4.143	4	0.386	63.0(167)	3.8(10)	33.2( 88)
	2학년	32.1 (240)				60.0(144)	7.9(19)	32.1( 77)
	3학년	32.5 (243)				60.9(148)	7.0(17)	32.1( 78)
종교별	불교	33.8 (258)	10.526	8	0.230	54.9(139)	5.9(15)	39.1( 99)
	천주교	9.1 (68)				64.7( 44)	8.8( 6)	26.5( 18)
	기독교(개신교)	16.6 (124)				63.7( 79)	8.1(10)	28.2( 35)
	무교	37.0 (277)				64.6(179)	5.1(14)	30.3( 84)
	기타	3.5 (26)				69.2( 18)	3.8( 1)	26.9( 7)

표12에서 보면 불만스럽다는 이유중에는 가정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修養觀에 41.7%, 가족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라고 하는 活動觀에 40.1%로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하는 快樂觀에 18.2%로 낮게 반응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수양관에서 여학생(49.4%)이 남학생(33.1%)보다 높게, 활동관에서는 남자(49.3%)가 여자 (32.0%)보다 높게 반응하여 남·여간에는  $p < 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修養觀에서 1학년이, 快樂觀에서는 3학년이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活動觀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수양관에서 기독교(56.8%), 무교(42.4%), 불교(29.5%)의 순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쾌락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활동관에서는 불교(50.0%), 무교(42.4%)가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종교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주교와 기타는 표집인원이 30명 이하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외시켰다.

표 12. 家庭에 대한 不滿足 要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전 체		28.1 (292)				41.7(122)	18.2(53)	40.1(117)
성 별	남	46.6 (136)	9.360	2	** 0.009	33.1( 45)	17.6(24)	49.3( 67)
	여	53.4 (156)				49.4( 77)	18.6(29)	32.0( 50)
학 년 별	1학년	31.2 ( 91)	10.202	4	* 0.037	54.9( 50)	13.2(12)	31.9( 29)
	2학년	33.9 ( 99)				35.3( 35)	17.2(17)	47.5( 47)
	3학년	34.9 (102)				36.3( 37)	23.5(24)	40.2( 41)
종 교 별	불 교	30.1 ( 88)	15.815	8	* 0.045	29.5( 26)	20.5(18)	50.0( 44)
	천주교	8.2 (24)				45.8( 11)	25.0( 6)	29.2( 7)
	기독교(개신교)	15.1 ( 44)				56.8( 25)	18.2( 8)	25.0( 11)
	무 교	42.8 (125)				42.4( 53)	15.2(19)	42.4( 53)
	기 타	3.8 (11)				63.6( 7)	18.2( 2)	18.2( 2)

\*  $p < 0.05$     \*\*  $p < 0.01$

#### 5) 家庭觀의 綜合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정에 대하여 어떠한 價値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앞에서 살펴 본 家族制度, 家長의 役割, 家庭의 機能, 家庭에 대한 滿足·不滿足 要因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결과를 통합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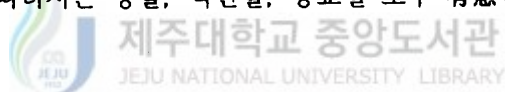
표13을 보면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정관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靜的價値觀에 50.2%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動的 價値觀에 32.4%, 中庸的價値觀에 17.4%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家 庭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8.021	8	0.431	50.2(1050)	17.4(364)	32.4( 678)
	여	49.7 (2068)				51.7(1069)	19.0(393)	29.3( 606)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15.681	16	0.475	51.8(737)	18.4(262)	29.8( 425)
	2학년	32.6 (1356)				50.7(687)	18.7(254)	30.6( 415)
	3학년	33.2 (1380)				50.4(695)	17.5(241)	32.2( 444)
종 교 별	불 교	32.8 (1364)	32.400	32	0.447	49.6(677)	17.7(242)	32.6( 445)
	천주교	8.8 ( 368)				51.4(189)	20.1(74)	28.5( 105)
	기독교	16.2 ( 672)				53.0(356)	17.6(118)	29.5( 198)
	무 교	38.6 (1608)				51.3(825)	18.5(297)	30.2( 486)
	기 타	3.6 ( 148)				48.6( 72)	17.6( 26)	33.8( 50)
전 체	100 (4160)				50.9(2119)	18.2(757)	30.9(1284)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성별, 학년별, 종교별 모두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정관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지향 의식이 많이 유지되고 있으나 동적가치관에도 32.4%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가정에 대한 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의식이 함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教 育 觀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속에 나타난 가치지향의 결과를 알기 위하여 教育을 받는 目的, 學習의 動機, 教育의 成果, 尊敬하는 教師像 등의

내용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教育을 받는 目的

교육을 받는 目的을 알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6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활동관이며, 答紙 ①바르게 사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修養觀, ②취직하는데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快樂觀, ③취미와 소질을 찾아 더욱 키우기 위하여를 活動觀으로 보고 分析하였다.

표 14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修養觀 41.6%, 快樂觀 39.0%로 비슷하게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活動觀에는 19.3%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교육을 받는 목적이 취미와 소질을 발전시키는 것 보다는 바르게 사는 태도 및 취직하는데 필

표 14. 教育받는 目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41.6(433)	39.0(406)	19.3(201)			
성별	남	50.3 (523)	5.916	2	0.05*	38.6(202)	42.6(223)	18.7( 98)			
	여	49.7 (517)							44.7(231)	35.4(183)	19.9(103)
학년별	1학년	34.2 (356)	10.540	4	0.032*	40.4(144)	36.5(130)	23.0( 82)			
	2학년	32.6 (339)							37.8(128)	43.1(146)	19.2( 65)
	3학년	33.2 (345)									
종교별	불교	32.8 (341)	10.866	8	0.209	40.5(138)	37.2(127)	22.3( 76)			
	천주교	8.8 (92)							53.3( 49)	32.6( 30)	14.1( 13)
	기독교(개신교)	16.2 (168)									
	무교	38.6 (402)							42.3( 71)	36.3( 61)	21.4( 36)
	기타	3.6 (37)							40.0(161)	42.8(172)	17.2( 69)
						37.8( 14)	43.2( 16)	18.9( 7)			

\* p<0.05

요한 실력을 기르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양관에서 남학생(38.6%)보다 여학생(44.7%)이 높게, 쾌락관에서 남학생(42.6%)이 여학생(35.4%)보다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활동관에서는 남·여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양관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활동관에서는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쾌락관은 2학년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양관에서 천주교(53.3%)를 믿는 학생이 비교적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2) 學習의 動機

학습의 동기에는 어떠한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집에서 공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7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 모형은 인간관계관이며, 答紙①부모나 선생님이 시키기 때문, 縱的關係指向, ②형(언니, 누나, 오빠)의 충고를 듣고 한다. 橫的關係指向, ③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한다. 라고 응답한 학생을 個人主義指向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 15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個人主義指向이 57.8%, 縱的關係指向이 27.2%, 橫的關係指向이 1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종적관계지향(31.2%)과 횡적관계지향(18.4%)에서 약간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학생(65.2%)은 개인주의 지향에서 남학생(50.5%)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학년에서 종적 관계지향에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學習의 動機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전 체		100 (1040)				27.2(283)	15.0(156)	57.8(601)			
성 별	남	50.3 (523)	23.435	2	*** 0.001	31.2(163)	18.4( 96)	50.5(264)			
	여	49.7 (517)							23.2(120)	11.6( 60)	65.2(337)
학 년 별	1학년	34.2 (356)	2.897	4	0.575	30.1(107)	15.4( 55)	54.5(194)			
	2학년	32.6 (339)							26.0( 88)	14.2( 48)	59.9(203)
	3학년	33.2 (345)							25.5( 88)	15.4( 53)	59.1(204)
종 교 별	불 교	32.8 (341)	4.846	8	0.773	28.4( 97)	16.7( 57)	54.8(187)			
	천주교	8.8 (92)							27.2( 25)	13.0( 12)	59.8( 55)
	기독교(개신교)	16.2 (168)							25.0( 42)	17.9( 30)	57.1( 96)
	무 교	38.6 (402)							27.4(110)	13.2( 53)	59.5(239)
	기 타	3.6 (37)							24.3( 9)	10.8( 4)	64.9( 24)

\*\*\* p < 0.0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教育의 成果

教育의 成果에 대해서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自然觀이며, 答紙 ①지능을 順應觀, ②가정환경을 調和觀, ③자신의 노력을 主體觀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 16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노력, 즉 主體觀에 응답한 학생이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환경이라는 調和觀에 10.9%, 지능이라는 順應觀에 7.9%순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는 성별, 학년별, 종교별 모두 有意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敎育의 成果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7.9(82)	10.9(114)	81.2(844)
성별	남	50.3 (523)	3.409	2	0.181	6.5(34)	11.5( 60)	82.0(429)
	여	49.7 (517)				9.3(48)	10.4( 54)	80.3(415)
학년별	1학년	34.2 (356)	4.287	4	0.368	9.8(35)	10.4( 37)	79.8(284)
	2학년	32.6 (339)				6.2(21)	12.7( 43)	81.1(275)
	3학년	33.2 (345)				7.5(26)	9.9( 34)	82.6(285)
종교별	불교	32.8 (341)	5.490	8	0.704	7.9(27)	10.8( 37)	81.2(277)
	천주교	8.8 (92)				5.4( 5)	8.7( 8)	85.9( 79)
	기독교(개신교)	16.2 (168)				8.9(15)	13.7( 23)	77.4(130)
	무교	38.6 (402)				7.5(30)	10.2( 41)	82.3(331)
	기타	3.6 (37)				13.5( 5)	13.5( 5)	73.0( 27)

4) 존경하는 敎師像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존경하는 교사상에는 어떠한 가치지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떠한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9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인간관계관이며, 答紙 ①언행이 바른 선생님을 從的關係指向, ②학생에게 친절한 선생님을 橫的關係指向, ③실력이 많은 선생님을 個人主義指向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17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縱的關係指向 50.5%, 橫的關係指向 43.6%, 個人主義指向 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실력이 많은 선생님보다는

言行이 바르고 친절한 선생님을 선호하는 종적·횡적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尊敬하는 教師像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50.5(525)	43.6(454)	5.9(61)			
성별	남	50.3 (523)	11.480	2	** 0.003	45.7(239)	48.8(255)	5.5(29)			
	여	49.7 (517)							55.3(286)	38.5(199)	6.2(32)
학년별	1학년	34.2 (356)	28.051	4	*** 0.001	40.7(145)	52.0(185)	7.3(26)			
	2학년	32.6 (339)							52.5(178)	44.0(149)	3.5(12)
	3학년	33.2 (345)							58.6(202)	34.8(120)	6.7(23)
종교별	불교	32.8 (341)	7.905	8	1.442	49.9(170)	45.7(156)	4.4(15)			
	천주교	8.8 (92)							54.3( 50)	38.0( 35)	7.6( 7)
	기독교(개신교)	16.2 (168)							51.2( 86)	44.6( 75)	4.2( 7)
	무교	38.6 (402)							51.0(205)	41.8(168)	7.2(29)
	기타	3.6 (37)							37.8( 14)	54.1( 20)	8.1( 3)

\*\* p < 0.01      \*\*\* p < 0.001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縱的關係指向에서는 남학생(45.7%)보다 여학생(55.3%)이 높게, 橫的關係指向에서는 여학생(38.5%)보다 남학생(48.8%)이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個人主義指向에서는 남·여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도 p<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縱的關係指向에서는 1학년(40.7%), 2학년(52.5%), 3학년(58.6%)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橫的關係指向에서는 3학년(34.8%), 2학년(44.0%), 1학년(52.0%)순으로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個人主義指向에서는 意義있는 차이가 없다. 종교에

따라서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從的關係指向에서 기타교가 약간 낮게 나타나는 반면 橫的關係指向에서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教育觀의 綜合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교육에 관하여 어떠한 價値觀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여 앞에서 살펴본 4문항, 즉 교육받는 目的, 학습의 機能, 교육의 成果, 존경하는 敎師像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결과를 통합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18을 보면 교육관 전체적으로는 動的價値指向 41.0%, 靜的價値指向 31.8%, 中庸的價値指向 27.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教 育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 <sup>2</sup>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9.265	8	0.320	30.5(638)	30.3(634)	39.2(820)
	여	49.7 (2068)				33.1(685)	24.0(496)	42.9(887)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20.866	16	0.183	30.3(431)	28.6(407)	41.1(586)
	2학년	32.6 (1356)				30.6(415)	28.5(386)	40.9(555)
	3학년	33.2 (1380)				34.6(477)	24.4(337)	41.0(566)
종 교 별	불교	32.8 (1364)	25.110	32	0.801	31.7(432)	27.6(377)	40.7(555)
	천주교	8.8 (368)				35.1(129)	23.1( 85)	41.8(154)
	기독교	16.2 (672)				31.8(214)	28.2(189)	40.0(269)
	(개신교)	38.6 (1608)				31.5(506)	27.0(434)	41.5(668)
	무교	3.6 (146)				28.4( 42)	30.4( 45)	41.2( 61)
전 체	100 (12480)				31.8(3969)	27.2(3390)	41.0(5121)	

배경 변인별로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중용적 가치관에서 여학생이 24.0%인 반면 남학생은 30.3%로 남학생이 약간 높기는 하나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에서 정적가치관이 1,2학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용적 가치관에서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有意한 차이가 없다. 종교별로는 정적가치관에서 천주교가 약간 높은 반면 중용적 가치관에서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有意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人生觀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人生에 대한 價値指向을 調査하기 위하여 人生의 目標, 生의 보람, 幸福과 不幸, 生活條件등의 내용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人生의 目標

人生의 目標가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지향을 보이는지를 알기 위하여 “장래의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10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 모형은 生活觀이며 答紙 ①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는 것을 修養觀, ②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회지도자가 되는 것을 快樂觀, ③학문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개척자가 되는 것을 活動觀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19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修養觀 46.2%, 活動觀 34.1%, 快樂觀 19.7% 순으로 나타나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人生의 目標는 修養觀가 活動觀에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 수양관은 여학생(56.3%)이 남학생(3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쾌락관은 남학생(22.4%)이 여학생(17.0%)보다 높게, 활동관도 남학생(41.5%)이 여학생(2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 수양관은 천주교(56.5%), 기독교(53.6%), 무교(47.0%), 불교(39.9%), 기타교(35.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쾌락관은 기독교(14.9%)가 가장 낮은 반면 기타교(27.0%)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활동관에서는 천주교(23.9%)가 낮은 반면 불교(40.8%)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人生的目標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는 성별(P<0.001), 학년별(P<0.001), 종교별(P<0.01) 모두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人生的目標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46.2(480)	19.7(205)	34.1(355)
성별	남	50.3 (523)	43.811	2	*** 0.001	36.1(189)	22.4(117)	41.5(217)
	여	49.7 (517)				56.3(291)	17.0( 88)	26.7(138)
학년별	1학년	34.2 (356)	24.968	4	*** 0.001	40.4(144)	15.7( 56)	43.8(156)
	2학년	32.6 (339)				51.0(173)	19.8( 67)	29.2( 99)
	3학년	33.2 (345)				47.2(163)	23.8( 82)	29.0(100)
종교별	불교	32.8 (341)	20.125	8	** 0.009	39.9(136)	19.4( 66)	40.8(139)
	천주교	8.8 (92)				56.5( 52)	19.6( 18)	23.9( 22)
	기독교(개신교)	16.2 (168)				53.6( 90)	14.9( 25)	31.5( 53)
	무교	38.6 (402)				47.0(189)	21.4( 86)	31.6(127)
	기타	3.6 (37)				35.1( 13)	27.0( 10)	37.8( 14)

\*\* p<0.01    \*\*\* p<0.001

2) 生の 보람

생의 보람에는 어떠한 價値指向을 보이는지 알기 위하여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어떤 때 입니까 ?”(11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 모형은 活動觀이며, 答紙 ①착한일을 하고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修養觀, ②교과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을 때, 快樂觀, ③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였을 때를 活動觀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20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活動觀 50.4%, 快樂觀 27.7%, 修養觀 21.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生の 보람.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21.9(228)	27.7(288)	50.4(524)
성별	남	50.3 (523)	22.948	2	*** 0.001	26.2(137)	21.8(114)	52.0(272)
	여	49.7 (517)				17.6( 91)	33.7(174)	48.7(252)
학년별	1학년	34.2 (356)	6.4798	4	0.166	21.9( 78)	31.5(112)	46.6(166)
	2학년	32.6 (339)				22.7( 77)	27.7( 94)	49.6(168)
	3학년	33.2 (345)				21.2( 73)	23.8( 82)	55.1(190)
종교별	불교	32.8 (341)	11.591	8	0.170	26.1( 89)	27.3( 93)	46.6(159)
	천주교	8.8 (92)				27.2( 25)	22.8( 21)	50.0( 46)
	기독교(개신교)	16.2 (168)				22.6( 38)	27.4( 46)	50.0( 84)
	무교	38.6 (402)				16.9( 68)	29.4(118)	53.7(216)
	기타	3.6 (37)				21.6( 8)	27.0( 10)	51.4( 19)

\*\*\* p < 0.001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 수양관에는 남학생(26.2%)이 여학생(17.6%)보다 약간 높게, 쾌락관에서는 여학생(33.7%)이 남학생(21.8%)보다 약간 높게, 활동관에서는 남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남·여간의 생의 보람에 대하여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나, 활동관에서 고학년일수록, 쾌락관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약간 높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수양관에서만 무교가 약간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幸福과 不幸

행복과 불행에 대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치지향은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自然觀이며, 答紙 ①타고난 운명이다. 順應觀, ②인간의 노력으로 조금은 바꿀 수 있다. 調和觀, ③인간의 노력으로 거의 결정된다는 主體觀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21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主體觀 47.2%, 調和觀 36.9%, 順應觀 1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주체관에서 남학생(53.0%)이 여학생(41.4%)보다 높게, 조화관은 여학생(44.9%)이 남학생(29.1%)보다 높게, 예속관에서는 남학생(18.0%)이 여학생(13.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여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가치지향은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가 없으나 順應觀에서 기타교가 약간 높게,

표 21. 幸福과 不幸.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5.9(165)	36.9(384)	47.2(491)
성별	남	50.3 (523)	27.538	2	*** 0.001	18.0( 94)	29.1(152)	53.0(277)
	여	49.7 (517)				13.7( 71)	44.9(232)	41.4(214)
학년별	1학년	34.2 (356)	5.3678	4	0.251	17.7( 63)	39.0(139)	43.3(154)
	2학년	32.6 (339)				13.3( 45)	35.4(120)	51.3(174)
	3학년	33.2 (345)				16.5( 57)	36.2(125)	47.2(163)
종교별	불교	32.8 (341)	14.160	8	0.077	18.8( 64)	32.8(112)	48.4(165)
	천주교	8.8 (92)				8.7( 8)	35.9( 33)	55.4( 51)
	기독교(개신교)	16.2 (168)				12.5( 21)	40.5( 68)	47.0( 79)
	무교	38.6 (402)				15.4( 62)	39.3(158)	45.3(182)
	기타	3.6 (37)				27.0( 10)	35.1( 13)	37.8( 14)

\*\*\* p<0.001

천주교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 4) 生活信條

生活의 信條에서 나타나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치지향은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평소 생활에서 어느 것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3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生活觀이며, 答紙 ①공중도덕을 修養觀 ②법을 快樂觀 ③자신의 양심을 活動觀으로 보고 分析하였다.



표 22. 生活의 信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21.2(220)	21.0(218)	57.9(602)
성별	남	50.3 (523)	3.509	2	0.172	22.0(115)	18.5( 97)	59.5(311)
	여	49.7 (517)				20.3(105)	23.4(121)	56.3(291)
학년별	1학년	34.2 (356)	18.231	4	*** 0.001	23.6( 84)	26.4( 94)	50.0(178)
	2학년	32.6 (339)				18.9( 64)	20.9( 71)	60.2(204)
	3학년	33.2 (345)				20.9( 72)	15.4( 53)	63.8(220)
종교별	불교	32.8 (341)	9.064	8	0.336	20.5( 70)	19.9( 21)	59.5(203)
	천주교	8.8 (92)				18.5( 17)	22.8( 42)	58.7( 54)
	기독교(개신교)	16.2 (168)				17.3( 29)	25.0( 75)	57.7( 97)
	무교	38.6 (402)				24.1( 97)	18.7( 12)	57.2(230)
	기타	3.6 (37)				18.9( 7)	32.4( 95)	48.6( 18)

\*\*\* p<0.001

표22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活動觀이 57.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快樂觀(21.0%)과 修養觀(21.2%)이 비슷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P<0.001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양관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평소 생활에서 법을 지킨다는 쾌락관에서는 저학년일수록 높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활동관에서는 고학년일수록 높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조는 저학년일수록 법을, 고학년일수록 양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人生觀의 綜合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人生觀을 알아보고자 앞에서 살펴본 人生의 目標, 生의 보람, 행복과 불행, 生活信條 등 4문항을 綜合하여 統合모형에 따라 分析하였다.

표 23. 人 生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21.389	8	** 0.006	25.6(535)	22.9(480)	51.5(1077)
	여	49.7 (2068)				27.0(558)	29.7(615)	43.3( 895)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27.047	6	* 0.041	25.9(369)	28.2(401)	45.9( 654)
	2학년	32.6 (1356)				26.4(359)	26.0(352)	47.6( 645)
	3학년	33.2 (1380)				26.4(365)	24.8(342)	48.8( 673)
종 교 별	불 교	32.8 (1364)	22.834	32	0.883	26.3(359)	24.9(339)	48.8( 666)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8.8 (368)				27.7(102)	25.5( 93)	47.5( 173)
		16.2 (672)				26.5(178)	26.9(181)	46.6( 313)
	무 교	38.6 (1608)				25.9(416)	27.2(437)	46.9( 755)
	기 타	3.6 (146)				25.7( 38)	30.4( 45)	43.9( 65)
전 체		100 (12480)				26.3(3279)	32.5(4053)	41.2(5148)

\* p<0.05 \*\* p<0.01

표23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動的價値觀 41.2%, 中庸的價値觀 32.5%, 靜的價値觀 26.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1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적가치관에서는 남·여가 비슷하나 중용적가치관에서는 남학생(22.9%)보다 여학생(29.7%)이 약간 높게, 동적가치관에서는 여학생(43.3%)보다 남학생(51.5%)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p<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적가치관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용적 가치관은

학년이 높을 수록 약간 낮아지고, 동적가치관은 학년이 높을수록 약간 높아지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道 德 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도덕에 대한 의식속에는 어떠한 價値指向의 경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부모 奉養, 어른 恭敬, 長幼有序, 罪와 罰 등의 內容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老父母 奉養

“늙으신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14번)라는 질문을 하여 고등학생들의 의식속에 나타난 老父母 奉養에 대한 가치지향을 알아보았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인간관계관이며 答紙 ①큰 아들이 모셔야 한다. 縱的關係 ②아들모두가 생활비를 드리고 부모님대로 사시게 한다. 平等·橫的關係 ③돈이 가장 많은 아들이 모셔야 한다는 個人主義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24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縱的關係指向이 55.3%, 平等·橫的關係指向이 29.6%, 個人主義 指向이 15.1%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長子 선호사상이 제주도 고등학생들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적관계지향은 남학생(62.9%)이 여학생(47.6%)보다 높게, 횡적관계지향에서는 여학생(36.2%)이 남학생(23.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주의 지향에서는 남·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표 24. 老父母 奉養.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55.3(575)	29.6(308)	15.1(157)			
성 별	남	50.3 (523)	27.203	2	*** 0.001	62.9(329)	23.1(121)	14.0( 73)			
	여	49.7 (517)							47.6(246)	36.2(187)	16.2( 84)
학 년 별	1학년	34.2 (356)	10.233	4	* 0.036	57.0(203)	26.7( 95)	16.3( 58)			
	2학년	32.6 (339)							58.7(199)	30.4(103)	10.9( 37)
	3학년	33.2 (345)							50.1(173)	31.9(110)	18.0( 62)
종 교 별	불교	32.8 (341)	14.595	8	0.067	62.8(214)	24.0( 82)	13.2( 45)			
	천주교	8.8 (92)							53.3( 49)	34.8( 32)	12.0( 11)
	기독교(개신교)	16.2 (168)							50.6( 85)	32.1( 54)	17.3( 29)
	무교	38.6 (402)							51.5(207)	32.6(131)	15.9( 64)
	기타	3.6 (37)							54.1( 20)	24.3( 9)	21.6( 8)

\* p<0.05

\*\*\* p<0.001

따라서 P<0.05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적관계지향에서는 3학년이 약간 낮은 반면 횡적관계지향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약간 높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2학년은 개인주의지향에서 타 학년보다 가장 낮게 나타나는 반면 종적관계지향에서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有意한 차이가 없으나 불교인 학생이 縱的價値指向에 약간 높게, 기타교인 경우는 個人主義 指向에 약간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2) 어른 恭敬

어른 공경에 대한 의식속에 나타난 價値指向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 내가 인사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인간관계관이며 答紙 ①우리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

縱的關係指向, ②우리반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 橫的關係指向, ③나에게 친절  
한 선생님을 個人主義指向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25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縱的關係指向 64.0%, 橫的關係指向  
21.6%, 個人主義指向 14.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어른 恭敬.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64.0(666)	21.6(225)	14.3(149)
성 별	남	50.3 (523)	14.275	2	*** 0.001	59.5(311)	22.4(117)	18.2( 95)
	여	49.7 (517)				68.7(355)	20.9(108)	10.4( 54)
학 년 별	1학년	34.2 (356)	4.018	4	0.403	62.6(223)	23.6( 84)	13.8( 49)
	2학년	32.6 (339)				64.9(220)	22.4( 76)	12.7( 43)
	3학년	33.2 (345)				64.6(223)	18.8( 65)	16.5( 57)
종 교 별	불교	32.8 (341)	16.059	8	* 0.041	66.0(225)	19.4( 66)	14.7( 50)
	천주교	8.8 (92)				68.5( 63)	23.9( 22)	7.6( 7)
	기독교(개신교)	16.2 (168)				65.5(110)	24.4( 41)	10.1( 17)
	무교	38.6 (402)				61.4(247)	22.6( 91)	15.9( 64)
	기타	3.6 (37)			56.8( 21)	13.5( 5)	29.7( 11)	

\*  $p < 0.05$       \*\*\*  $p < 0.001$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적관계지향에서 남학생(59.5%)보다 여학생(  
68.7%)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주의 지향에는 여학생(10.4%)보다 남학생(  
18.2%)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종적관계지향에서와 횡적관계지향에서는 기타교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주의 지향에서는 천주교가 가장 낮은 반면 기타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長幼有序

장유유서에 대한 價値指向의 경향을 알기 위하여 “어른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까?”(16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표 26. 長幼有序.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57.8(601)	23.7(247)	18.5(192)
성 별	남	50.3 (523)	16.565	2	*** 0.001	53.9(282)	29.1(152)	17.0( 89)
	여	49.7 (517)				61.7(319)	18.4( 95)	19.9(103)
학 년 별	1학년	34.2 (356)	8.827	4	0.065	58.1(207)	19.7( 70)	22.2( 79)
	2학년	32.6 (339)				56.7(192)	27.4( 93)	15.9( 54)
	3학년	33.2 (345)				58.5(202)	24.4( 84)	17.1( 59)
종 교 별	불교	32.8 (341)	6.379	8	0.604	56.9(194)	24.9( 85)	18.2( 62)
	천주교	8.8 (92)				64.1( 59)	20.7( 19)	15.2( 14)
	기독교(개신교)	16.2 (168)				58.9( 99)	26.8( 45)	14.3( 24)
	무교	38.6 (402)				57.0(229)	22.4( 90)	20.6( 83)
	기타	3.6 (37)				54.1( 20)	21.6( 8)	24.3( 9)

\*\*\* p < 0.001

인간관계관이며 答紙 ①모든 어른 앞에서 조심하는 편이다. 縱的關係指向, ②나를 아는 어른 앞에서만 조심하는 편이다. 橫的關係指向, ③별로 조심하지 않는 편이다. 個人主義指向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26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縱的關係指向 57.8%, 橫的關係指向 23.7%, 個人主義指向 18.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다. 종적관계지향에서는 남학생(53.9%)보다 여학생(61.7%)이 약간 높게, 횡적관계지향에서는 여학생(18.4%)보다 남학생(29.1%)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주의지향은 남·여가 비슷하다. 학년별과 종교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罪와 罰

죄와 벌에 대한 價値指向의 傾向을 알기 위하여 “나쁜 짓을 하는 학생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17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인간관계관이며 答紙 ①학교나 경찰에 알리어 벌을 받게 하겠다. 從的關係指向, ②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도록 충고하겠다. 橫的關係指向, ③나와 관계 없는 일이면 상관하지 않겠다. 個人主義指向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27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충고하겠다는 橫的關係指向에 50.4%, 상관하지 않겠다는 個人主義指向 40.8%, 학교나 경찰에 알리어 벌을 받게 하겠다는 縱的關係指向에 8.8% 순으로 나타났다. 충고하겠다는 횡적관계지향에 높게 반응을 하고 있으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개인주의지향에도 40.8%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종적관계지향에서 남학생(11.9%)이 여학생(5.5%)보다 높게, 횡적관계지향에서는 여학생(55.5%)이 남학생(45.5%)보다 높게, 개인주의 지향에는 남학생(42.6%)이 여학생(38.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橫的關係指向에서 3학년이 약간

낮게, 個人主義 指向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별로는  $P<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縱的關係指向에서 천주교(3.3%)가 가장 낮는데 반해 기타교(27.0%)는 높게, 橫的關係指向에는 무교(44.5%)가 가장 낮은 반면 천주교(57.6%)가 높게, 個人主義 指向에는 기타교(21.6%)가 낮은 반면 무교(49.0%)가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7. 罪와 罰.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8.8( 91)	50.4(525)	40.8(424)
성별	남	50.3 (523)	18.167	2	*** 0.001	11.9(62)	45.5(238)	42.6(223)
	여	49.7 (517)				5.6(29)	55.5(287)	38.9(201)
학년별	1학년	34.2 (356)	3.902	4	* 0.05	9.6(34)	52.5(187)	37.9(135)
	2학년	32.6 (339)				7.7(26)	52.2(177)	40.1(136)
	3학년	33.2 (345)				9.0(31)	46.7(161)	44.3(156)
종교별	불교	32.8 (341)	39.791	8	*** 0.001	10.3(35)	55.1(188)	34.6(118)
	천주교	8.8 (92)				3.3( 3)	57.6( 53)	39.1( 36)
	기독교(개신교)	16.2 (168)				10.1(17)	51.2( 86)	38.7( 65)
	무교	38.6 (402)				6.5(26)	44.5(179)	49.0(197)
	기타	3.6 (37)				27.0( 10)	51.4( 19)	21.6( 8)

\*  $p<0.05$       \*\*\*  $p<0.001$

### 5) 道德觀의 綜合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道德觀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老父母 奉養, 어른 恭敬, 長幼有序, 罪와 罰에 나타난 價値指向을 종합적으로 통합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28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靜的價値觀 47.0%, 中庸的價値觀 30.0%, 動的價値觀



23.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道 德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10.848	8	0.210	47.0(984)	30.0(628)	23.0(480)
	여	49.7 (2068)				45.9(949)	32.7(677)	21.4(442)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19.132	16	0.261	46.9(669)	30.5(434)	22.5(321)
	2학년	32.6 (1356)				47.0(637)	33.1(449)	19.9(270)
	3학년	33.2 (1380)				45.6(629)	30.4(420)	24.0(331)
종 교 별	불 교	32.8 (1364)	45.380	32	0.054	49.0(668)	31.0(421)	20.0(275)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8.8 (368)				47.3(174)	34.2(126)	18.5( 68)
	무 교	16.2 (672)				46.3(311)	33.6(226)	20.1(135)
	기 타	38.6 (1608)				44.1(709)	30.5(491)	25.4(408)
		3.6 (146)				48.0( 71)	27.8( 41)	24.4( 36)
전 체		100 (12480)				46.5(5799)	31.4(3915)	22.1(2766)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성별, 학년별,종교별 모두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社 會 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의식 속에는 어떠한 價値指向의 경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여 韓國人으로서의 公知, 社會的 成功, 理想的 社會, 社會에 대한 滿足·不滿足 要因 등의 內容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韓國人으로서의 긍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번)라는 질문을 통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유 중에서 하나만 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시간관이며, 答紙 ①은 過去指向, ②는 現在指向, ③은 未來指向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 29. 韓國人으로서의 矜持(滿足要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 <sup>2</sup>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60.5 (629)				49.3(310)	3.8(24)	46.9(295)
성 별	남	52.0 (327)	12.229	2	**** 0.002	44.0(144)	5.8(19)	50.2(164)
	여	48.0 (302)				55.0(166)	1.7( 5)	43.3(131)
학 년 별	1학년	35.8 (225)	3.336	4	0.503	47.1(106)	4.9(11)	48.0(108)
	2학년	33.5 (211)				51.7(109)	4.3( 9)	44.1( 93)
	3학년	30.7 (193)				49.2( 95)	2.1( 4)	48.7( 94)
종 교 별	불교	33.2 (209)	14.574	8	0.068	47.4( 99)	7.2(15)	45.5( 95)
	천주교	9.2 (58)				53.4( 31)	3.4( 2)	43.1( 25)
	기독교(개신교)	15.9 (100)				55.0( 55)	2.0( 2)	43.0( 43)
	무교	38.8 (244)				46.7(114)	1.6( 4)	51.6(126)
	기타	2.9 (18)				61.1( 11)	5.6( 1)	33.3( 6)

\*\*\*\* p<0.005

표29, 30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랑스럽다에 60.5%, 부끄럽게 생각한다에 39.5%

로 자랑스럽다는 학생이 많기는 하나 부끄럽다는 학생도 39.5%나 되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9에서 보면 자랑스럽다는 학생 중에서 答紙 ①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므로 한 過去指向이 49.3%, ②국민 모두가 잘 살기에라고 한 現在指向에 3.8%, ③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 未來指向에 46.9%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지향에서 남학생(44.0%)보다 여학생(55.0%)이 높고, 현재지향에는 남학생(5.8%)보다 여학생(1.7%)이 약간 약간 낮고, 미래지향에는 남학생(50.2%)이 여학생(43.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에 따라서도 有意한 차이는 없으나 過去指向에서 기타교가 약간 높게, 未來指向에서는 기타교가 낮은 반면 무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0의 부끄러운 이유중에서 보면 答紙 ①우리 전통이 자꾸 사라져감으로 라고 하는 過去指向에 39.7%, ②국민수준이 높지 못하므로 라고 하는 現在指向에 28.7%, ③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으므로 라고 하는 未來指向에 31.6%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過去指向에 남학생(35.2%)이 여학생(43.7%)보다 낮게, 未來指向에는 남학생(36.2%)이 여학생(27.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未來指向에서 고학년일수록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별에 따라서는 過去指向에서 천주교(44.1%)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29.4%)를 믿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未來指向에서 기독교(32.4%)학생이 천주교(23.5%)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종교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교인 경우 표집인원이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외시켰다.

표 30. 韓國人으로서의 矜持(不滿要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39.5 (411)				39.7(163)	28.7(118)	31.6(130)
성별	남	50.3 (196)	4.378	2	0.112	35.2(69)	28.6(56)	36.2(71)
	여	49.7 (215)				43.7(94)	28.8(62)	27.4(59)
학년별	1학년	34.2 (131)	2.990	4	0.559	42.0(55)	31.3(41)	26.7(35)
	2학년	32.6 (128)				41.4(53)	25.8(33)	32.8(42)
	3학년	33.2 (152)				36.2(55)	28.9(44)	34.9(53)
종교별	불교	32.8 (132)	9.516	8	0.300	42.4(56)	29.5(39)	28.0(37)
	천주교	8.8 (34)				44.1(15)	32.4(11)	23.5(8)
	기독교(개신교)	16.2 (68)				29.4(20)	38.2(26)	32.4(22)
	무교	38.6 (158)				39.9(63)	24.1(38)	36.1(57)
	기타	3.6 (19)				47.4(9)	21.1(4)	31.6(6)

2) 社會에서의 成功

사회에서의 성공에는 어떠한 價値指向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20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시간관으로 答紙 ①가정배경이 좋은 사람을 過去指向, ②사고성이 좋은 사람을 現在指向, ③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을 未來指向으로 보고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31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未來指向 53.2%, 過去指向 31.8%, 現在指向 1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社會的 成功.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31.8(331)	15.0(156)	53.2(553)
성별	남	50.3 (523)	13.905	2	*** 0.001	26.8(140)	14.9(78)	58.3(305)
	여	49.7 (517)				36.9(191)	15.1(78)	48.0(248)
학년별	1학년	34.2 (356)	8.330	4	0.080	30.3(108)	13.2(47)	56.5(201)
	2학년	32.6 (339)				28.3( 96)	16.8(57)	54.9(186)
	3학년	33.2 (345)				36.8(127)	15.1(52)	48.1(166)
종교별	불교	32.8 (341)	16.306	8	* 0.038	26.4( 90)	14.1(48)	59.5(203)
	천주교	8.8 (92)				27.2( 25)	15.2(14)	57.6( 53)
	기독교(개신교)	16.2 (168)				35.1( 59)	14.9(25)	50.0( 84)
	무교	38.6 (402)				36.1(145)	16.7(67)	47.3(190)
	기타	3.6 (37)				32.4( 12)	5.4( 2)	62.2( 23)

\* p<0.05      \*\*\* p<0.001

배경변인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過去指向에서 여학생(36.9%)이 남학생(26.8%)보다 높게, 未來指向에서는 남학생(58.3%)이 여학생(48.0%)보다 높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現在指向에서는 남, 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P<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過去指向에서는 불교, 천주교, 기타교, 기독교, 무교 순으로 약간씩 높게, 現在指向에서는 기타교만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未來指向에서는 무교(47.3%), 기독교(50.0%), 천주교(57.6%), 불교(59.5%), 기타교

(6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理想的인 社會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價値指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나라가 가장 부러운가?”(21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時間觀이며 答紙 ①영국처럼 역사와 전통을 숭상하는 나라를 過去指向, ②스위스처럼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를 現在指向, ③덴마크처럼 국민의 개척정신이 강한 나라를 未來指向으로 보고 반응결과를 분석하였다.

표32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未來指向 57.4%, 現在指向 28.9%, 過去指向 13.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理想的인 社會.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 <sup>2</sup>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3.7(142)	28.9(301)	57.4(597)			
성별	남	50.3 (523)	15.717	2	*** 0.001	13.8( 72)	34.2(179)	52.0(272)			
	여	49.7 (517)							13.5( 70)	23.6(122)	62.9(325)
학년별	1학년	34.2 (356)	4.822	4	0.306	12.6( 45)	28.7(102)	58.7(209)			
	2학년	32.6 (339)							11.8( 40)	28.3( 96)	59.9(203)
	3학년	33.2 (345)									
종교별	불교	32.8 (341)	5.344	8	0.720	15.8( 54)	29.0( 99)	55.1(188)			
	천주교	8.8 (92)							14.1( 13)	22.8( 21)	63.0( 58)
	기독교(개신교)	16.2 (168)									
	무교	38.6 (402)									
	기타	3.6 (37)									

\*\*\* p<0.001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 $P < 0.001$ )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여별 과거지향에는 별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現在指向에서는 남학생(34.2%)이 여학생(23.6%)보다 높게, 未來指向에서는 여학생(62.9%)이 남학생(52.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별에 따라서는 現在指向에서 천주교(22.8%)가 낮게, 기타교(37.8%)가 높은 반면 未來指向에서는 천주교(63.0%)가 기타교(5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다른 종교와의 일관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 4) 社會에 대한 滿足·不滿足의 要因

제주도 사회에 대한 滿足·不滿足 要因에 나타난 가치지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에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2번)라는 질문에, 만족하면 만족한 이유를,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自然觀으로 答紙 ①順應觀, ②調和觀, ③主體觀으로 보고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33, 34에서 보면 만족하다에 65.2%, 불만족스럽다에 34.8%를 나타내어 제주도에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3의 만족한 이유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答紙 ①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順應觀에 응답한 학생이 50.0% ②사람들이 순박하기 때문이라는 調和觀에 응답한 학생이 29.1% ③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主體觀에 20.9%를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分析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順應觀에서 남학생(51.8%)이 여학생(48.0%)보다 약간 높게, 調和觀에서 여학생(35.4%)이 남학생(23.2%)보다 높게, 主體觀에서 남학

생(25.0%)이 여학생(16.6%)보다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는데 천주교(69.7%)와 기타교(54.5%)가 順應觀에서 높게, 調和觀에서는 기타교(18.2%)가 낮게, 主體觀에서는 천주교(6.1%)가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 社會에 대한 滿足要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분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65.2 (678)				50.0(339)	29.1(197)	20.9(142)
성별	남	52.1 (353)	15.874	2	*** 0.001	51.8(183)	23.2( 82)	25.0( 88)
	여	47.9 (325)				48.0(156)	35.4(115)	16.6( 54)
학년별	1학년	35.2 (239)	0.942	4	0.918	50.6(121)	26.8( 64)	22.6( 54)
	2학년	31.7 (215)				47.9(103)	32.1( 69)	20.0( 43)
	3학년	33.1 (224)				49.6(111)	30.4( 68)	20.1( 45)
종교별	불교	32.7 (222)	19.236	8	* 0.013	46.4(103)	29.3( 65)	24.3( 54)
	천주교	9.7 (66)				69.7( 46)	24.2( 16)	6.1( 4)
	기독교(개신교)	14.8 (100)				45.0( 45)	28.0( 28)	27.0( 27)
	무교	39.5 (268)				49.6(133)	31.3( 84)	19.1( 51)
	기타	3.3 (22)				54.5( 12)	18.2( 4)	27.3( 6)

\*  $p < 0.05$       \*\*\*  $p < 0.001$

표34의 불만족스러운 이유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答紙 ①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順應觀에 19.3%, ②돈이나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調和觀에 13.5%, ③능력을 펴 볼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는 主體觀에 67.1%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년별에서는 意義있는 차이가 없으며, 종교별에서도



有意한 차이는 없으나 順應觀에서 기독교(23.5%)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와 기타교는 표집인원이 30명 이하이므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외시켰다.

표 34. 社會에 대한 不滿要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34.8 (362)				19.3( 70)	13.5( 49)	67.1(243)
성별	남	47.0 (170)	0.226	2	0.892	20.2( 34)	14.1( 24)	65.9(112)
	여	53.0 (192)				18.7( 36)	13.0( 25)	68.3(131)
학년별	1학년	32.3 (117)	3.469	4	0.482	18.8( 22)	16.2( 19)	65.0( 76)
	2학년	34.3 (124)				19.4( 24)	12.9( 16)	67.7( 84)
	3학년	33.4 (121)				16.5( 20)	14.9( 18)	68.6( 83)
종교별	불교	32.9 (119)	6.079	8	0.638	19.3( 23)	16.8( 20)	63.9( 76)
	천주교	7.2 (26)				19.2( 55)	3.8( 1)	76.9( 20)
	기독교(개신교)	18.8 (68)				23.5( 16)	16.2( 11)	60.3( 41)
	무교	37.0 (134)				17.9( 24)	11.2( 15)	70.9( 95)
	기타	4.1 (15)				13.3( 2)	13.3( 2)	73.3( 11)

##### 5) 社會觀의 綜合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사회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 본 韓國人으로서의 긍지, 社會에서의 成功, 理想的인 社會, 社會에 대한 滿足·不滿足의 要因 등에서 나타난 價値指向을 종합적으로 통합모형에 따라 分析하였다.

표35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動的價値觀 47.1%, 靜的價値觀 32.5%, 中庸的價値觀 2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관광도시화 됨으로 인하여 고등학생

들의 사회관은 動的價値指向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社 會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14.831	8	0.045 *	30.7(642)	20.9(438)	48.4(1012)
	여	49.7 (2068)				34.5(713)	19.7(407)	45.8(948)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20.739	18	0.292	32.1(457)	19.9(284)	48.0(683)
	2학년	32.6 (1356)				31.6(429)	20.4(276)	48.0(651)
	3학년	33.2 (1380)				33.7(465)	20.9(289)	45.4(626)
종 교 별	불교	32.8 (1364)	35.997	36	0.468	31.2(435)	21.0(286)	47.9(653)
	천주교	8.8 (368)				36.6(135)	17.7( 65)	45.7(168)
	기독교 (개신교)	16.2 (672)				32.1(216)	21.0(141)	46.9(315)
	무교	38.6 (1608)				32.9(529)	20.3(327)	46.8(752)
	기타	3.6 (146)				33.8( 50)	18.2( 27)	48.0( 71)
전 체	100 (12480)				32.5(4061)	20.4(2540)	47.1(5879)	

\* p<0.05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성별로는  $p<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靜的價値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動的價値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년별, 종교별 모두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6. 人 間 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인간에 대한 意識 속에는 어떠한 가치지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自然 對 人間, 男女平等, 交友關係, 約束尊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응답한 결과에 따라 分析하였다.

1) 自然 對 人間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나타난 가치지향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24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自然觀이며 答紙 ①인간은 자연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順應觀, ②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며 살아야 한다. 調和觀, ③인간은 자연을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는 主體觀으로 보고 반응결과를 분석하였다.

표36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主體觀 51.8%, 調和觀 35.4%, 順應觀 12.8%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자연을 이용하고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36. 自然 對 人間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2.8(133)	35.4(368)	51.8(539)			
성별	남	50.3 (523)	30.193	2	*** 0.001	15.5( 81)	41.1(215)	43.4(227)			
	여	49.7 (517)							10.1( 52)	29.6(153)	60.3(312)
학년별	1학년	34.2 (356)	14.633	4	**** 0.005	9.6( 34)	41.6(148)	48.8(174)			
	2학년	32.6 (339)							15.9( 54)	28.9( 98)	55.2(187)
	3학년	33.2 (345)							13.0( 45)	35.4(122)	51.6(178)
종교별	불교	32.8 (341)	6.431	8	0.599	12.3( 42)	32.8(112)	54.9(187)			
	천주교	8.8 (92)							16.3( 15)	34.8( 32)	48.9( 45)
	기독교(개신교)	16.2 (168)							11.9( 20)	34.5( 58)	53.6( 90)
	무교	38.6 (402)							12.9( 52)	38.8(156)	48.3(194)
	기타	3.6 (37)							10.8( 4)	27.0( 10)	62.1( 23)

\*\*\* p < 0.001

\*\*\*\* p < 0.005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이 順應觀(15.5%), 調和觀(41.1%)에서 높게, 여학생은 主體觀(60.3%)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보다 오히려 여학생이 動的價值指向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제주도 여성의 강인한 생활력이 여고생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P < 0.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順應觀에서 2학년(15.9%), 3학년(13.0%), 1학년(9.6%) 순으로, 調和觀에서는 1학년(41.6%), 3학년(35.4%), 2학년(28.9%) 순으로, 主體觀에서는 2학년(55.2%), 3학년(51.6%), 1학년(48.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3학년은 항상 중간 위치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별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나 기타교를 믿는 학생이 조화관에서는 낮은 반면 주체관에서는 높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 2) 男 女 平 等

男女平等에 대하여 어떠한 價值指向을 보이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여자가 결혼한 후에 직장(사회)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5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人間關係觀이며 答紙 ①반대한다. 權威.縱的關係指向, ②찬성도 반대도 않는다. 平等.橫的關係指向, ③찬성한다. 個人主義指向으로 보고 반응결과를 분석하였다.

표37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個人主義指向 62.2%, 橫的關係指向 23.2%, 縱的關係指向 14.6%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縱的關係指向에서 남학생(25.8%)이 여학생(3.3%)보다 높게, 橫的關係指向에도 남학생(33.1%)이 여학생(13.1%)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個人

主義指向에서는 여학생(83.6%)이 남학생(41.1%)보다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7. 男女平等.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4.6(152)	23.2(241)	62.2(647)
성 별	남	50.3 (523)	20.953	2	*** 0.001	25.8(135)	33.1(173)	41.1(215)
	여	49.7 (517)				3.3( 17)	13.1( 68)	83.6(432)
학 년 별	1학년	34.2 (356)	1.151	4	0.886	13.8( 49)	23.3( 83)	62.9(224)
	2학년	32.6 (339)				15.9( 54)	21.8( 74)	62.3(211)
	3학년	33.2 (345)				14.2( 49)	24.3( 84)	61.5(212)
종 교 별	불교	32.8 (341)	9.015	8	0.340	17.0( 58)	24.3( 83)	58.7(200)
	천주교	8.8 (92)				8.7( 8)	19.6( 18)	71.7( 66)
	기독교(개신교)	16.2 (168)				14.3( 24)	22.0( 37)	63.7(107)
	무교	38.6 (402)				14.2( 57)	24.4( 98)	61.4(247)
	기타	3.6 (37)				13.5( 5)	13.5( 5)	73.0( 27)

\*\*\* p<0.001

男女平等에 대해서는 여자가 직장을 가지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有意한 차이가 없으나 縱的關係指向에서 천주교는 낮은 반면 불교는 약간 높게, 橫的關係指向에서 기타교가 낮게, 個人主義指向에서는 기타교와 천주교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交友關係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치지향의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까 ?”(26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活動觀이며 答紙 ①에의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克己·修養觀, ②친절하고 명랑한 사람을 快樂觀, ③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사람을 活動觀으로 보고 반응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38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快樂觀 39.6%, 活動觀 31.9%, 修養觀 28.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交友關係.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28.5(296)	39.6(412)	31.9(332)			
성별	남	50.3 (523)	13.787	2	*** 0.001	33.5(174)	35.9(187)	30.6(160)			
	여	49.7 (517)							23.2(120)	43.5(225)	43.5(172)
학년별	1학년	34.2 (356)	14.113	4	0.145	27.2( 97)	46.3(165)	26.5( 94)			
	2학년	32.6 (339)							27.1( 92)	39.0(132)	33.9(115)
	3학년	33.2 (345)							31.0(107)	33.3(115)	35.7(123)
종교별	불교	32.8 (341)	10.271	8	0.241	24.6( 84)	40.8(139)	34.6(118)			
	천주교	8.8 (92)							34.8( 32)	39.1( 36)	26.1( 24)
	기독교(개신교)	16.2 (168)							30.4( 51)	39.3( 66)	30.4( 51)
	무교	38.6 (402)							27.9(112)	39.3(158)	32.8(132)
	기타	3.6 (37)							43.2( 16)	37.9( 14)	18.9( 7)

\*\*\* p < 0.001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修養觀에서 남학생이 높게, 快樂觀과 活動觀에서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 修養觀에서는 3학년이 높게, 快樂觀에서는 저학년일 수록 높게, 活動觀에서는 고학년일 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일관된 차이는 없으나 修養觀에서 불교가 약간 낮고, 기타교에서 높게, 調和觀에서는 비슷하고 活動觀에서는 기타교가 낮고 불교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4) 約束尊重

약속존중에 대한 價値指向을 알아보기 위하여 “누구와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고 있습니까?”(27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인간관계관이며 答紙 ①부모님과의 약속, 縱的關係指向, ②친구와의 약속, 橫的關係指向, ③내 자신과의 약속, 個人主義指向으로 보고 반응결과를 분석하였다.

표39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橫的關係指向 62.8%, 縱的關係指向 19.5%, 個人主義指向 17.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約束尊重.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9.5(203)	62.8(653)	17.7(184)
성별	남	50.3 (523)	11.259	2	**** 0.003	21.2(111)	58.0(303)	20.8(109)
	여	49.7 (517)				17.8( 92)	67.7(350)	14.5( 75)
학년별	1학년	34.2 (356)	5.547	4	0.235	20.8( 74)	59.6(212)	19.6( 70)
	2학년	32.6 (339)				21.2( 72)	63.8(216)	15.0( 51)
	3학년	33.2 (345)				16.5( 57)	65.2(225)	18.3( 63)
종교별	불교	32.8 (341)	19.041	8	* 0.014	21.7( 74)	55.1(188)	23.2( 79)
	천주교	8.8 (92)				13.0( 12)	65.2( 60)	21.8( 20)
	기독교(개신교)	16.2 (168)				19.0( 32)	67.3(113)	13.7( 23)
	무교	38.6 (402)				19.4( 78)	66.7(268)	13.9( 56)
	기타	3.6 (37)				18.9( 7)	64.9( 24)	16.2( 6)

\* p<0.05      \*\*\*\* p<0.005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적관계지향과 개인주의지향에서 남학생이 높게, 횡적관계지향에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다.

종교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縱的關係指向에서 천주교(13.0%)는 낮은 반면 불교(21.7%)는 높게, 橫的關係指向에서는 불교만 낮게, 個人主義指向에서는 기독교(13.7%)와 무교(13.9%)가 낮은 반면 불교(23.2%)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5) 人間觀의 綜合

제주도의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人間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여 앞에서 살펴 본 自然對人間, 男女平等, 交友關係, 約束尊重 등에서 나타난 價値指向을

표 40. 人 間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119.77	8	*** 0.001	24.0(502)	42.0(879)	34.0(711)			
	여	49.7 (2068)							13.6(281)	38.6(796)	48.0(991)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20.738	16	0.188	17.8(254)	42.7(608)	39.5(562)			
	2학년	32.6 (1356)							20.0(271)	38.4(521)	41.6(564)
	3학년	33.2 (1380)							18.7(258)	39.6(546)	41.7(576)
종 교 별	불교	32.8 (1364)	21.729	32	0.914	18.9(258)	38.3(522)	42.8(584)			
	천주교	8.8 (368)							18.2( 67)	39.7(146)	42.1(155)
	기독교 (개신교)	16.2 (672)							18.9(127)	40.8(274)	40.3(271)
	무교	38.6 (1608)							18.6(299)	42.3(680)	39.1(629)
	기타	3.6 (146)							21.6( 32)	35.8( 53)	42.6( 63)
전 체	100 (12480)					18.8(2349)	40.3(5025)	40.9(5106)			

\*\*\*  $p < 0.001$



종합적으로 통합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40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動的價值觀(40.9%)과 中庸的價值觀(40.3%)이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靜的價值觀(18.8%)에는 낮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중용적 가치관과 동적가치관 사이에 가치의 혼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는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靜的價值觀에서 남학생(24.0%)이 여학생(13.6%)보다 높게, 中庸的價值觀에서도 남학생(42.0%)이 여학생(38.6%)보다 높게, 動的價值觀에서는 여학생(48.0%)이 남학생(3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과 종교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교가 중용적 가치관에서 약간 낮게 반응하고 있다.

## 7. 職業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職業意識속에 나타난 價值指向의 傾向을 알아보기 위하여 職業의 必要性, 職業의 選擇, 일의 選擇, 職業의 貴賤 등의 內容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職業의 必要性

직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은 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8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活動觀이며 答紙 ① 놀고 먹으면 최악이므로, 修養觀, ②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으므로, 快樂觀, ③ 사람은 활동해야 하므로를 活動觀으로 보고 응답결과를 分析하였다.

표41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람은 활동해야 하므로 라고 하는 活動觀에 52.2%,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으므로 라고 하는 快樂觀에 44.0%, 놀고 먹으면 최악

표 41. 職業의 必要性.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3.8( 39)	44.0(458)	52.2(543)
성별	남	50.3 (523)	19.486	2	*** 0.001	4.8( 25)	49.7(260)	45.5(238)
	여	49.7 (517)				2.7( 14)	38.3(198)	59.0(305)
학년별	1학년	34.2 (356)	6.388	4	0.172	3.4( 12)	39.9(142)	56.7(202)
	2학년	32.6 (339)				2.9( 10)	47.2(160)	49.9(169)
	3학년	33.2 (345)				4.9( 17)	45.2(156)	49.9(172)
종교별	불교	32.8 (341)	6.452	8	0.596	3.5( 12)	41.9(143)	54.6(186)
	천주교	8.8 (92)				3.3( 3)	41.3( 38)	55.4( 51)
	기독교(개신교)	16.2 (168)				3.0( 5)	39.9( 67)	57.1( 96)
	무교	38.6 (402)				4.2( 17)	47.8(192)	48.0(193)
	기타	3.6 (37)				5.4( 2)	48.7( 18)	45.9( 17)

\*\*\* p<0.001

이므로 라고 하는 修養觀에 3.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의식에서는 수양관 보다는 활동관과 쾌락관에 많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학생이 쾌락관과 수양관에서 여학생보다 높게, 여학생은 활동관에서 높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활동관에서 1학년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도 일관된 차이는 없으나 쾌락관에서 기타교와 무교가 약간 높은 반면 활동관에서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職業의 選擇

직업의 선택에는 어떠한 價値指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이 다음에 어떤 직장을 택하고 싶습니까?”(29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活動觀이며 答紙 ①엿부터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 修養觀, ②수입(월급)이 많은 직업, 快樂觀, ③취미와 소질을 펴 볼 수 있는 직업을 活動觀으로 보고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2. 職業의 選擇.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6.2( 65)	23.6(245)	70.2(730)
성별	남	50.3 (523)	2.545	2	0.280	7.3( 38)	24.3(127)	68.4(358)
	여	49.7 (517)				5.2( 27)	22.8(118)	72.0(372)
학년별	1학년	34.2 (356)	7.964	4	0.092	9.0( 32)	22.5( 80)	68.5(244)
	2학년	32.6 (339)				5.6( 19)	24.8( 84)	69.6(236)
	3학년	33.2 (345)				4.0( 14)	23.5( 81)	72.5(250)
종교별	불교	32.8 (341)	8.270	8	0.407	7.9( 27)	19.9( 68)	72.2(246)
	천주교	8.8 (92)				5.4( 5)	27.2( 25)	67.4( 62)
	기독교(개신교)	16.2 (168)				7.2( 12)	22.6( 38)	70.2(118)
	무교	38.6 (402)				4.7( 19)	25.4(102)	69.9(281)
	기타	3.6 (37)				5.4( 2)	32.4( 12)	62.2( 23)

표42에서 보면 活動觀 70.2%, 快樂觀 23.6%, 修養觀 6.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나 활동관에서 여학생이 약간 높게 반응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일관된 차이는 없으나 수양관에서 학년이 낮을 수록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일관

된 차이는 없으나 쾌락관에서 불교가 약간 낮게 기타교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일의 選擇

일의 선택에 나타난 價値觀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급이 같을 때 어떤 직업을 택하시겠습니까?” (30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相關모형은 活動觀이며 答紙 ①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 修養觀, ②간단하고 쉬운 일, 快樂觀, ③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活動觀으로 보고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3. 일의 選擇.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 <sup>2</sup>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8.9(197)	22.6(235)	58.5(608)
성별	남	50.3 (523)	9.396	2	** 0.009	20.3(106)	25.8(135)	53.9(282)
	여	49.7 (517)				17.6( 91)	19.3(100)	63.1(326)
학년별	1학년	34.2 (356)	1.687	4	0.792	16.9( 60)	22.8( 82)	60.3(214)
	2학년	32.6 (339)				20.1( 68)	23.0( 78)	56.9(193)
	3학년	33.2 (345)				20.0( 69)	21.7( 75)	58.3(201)
종교별	불교	32.8 (341)	10.138	8	0.255	17.9( 61)	22.9( 78)	59.2(202)
	천주교	8.8 (92)				26.0( 24)	12.0( 11)	62.0( 57)
	기독교(개신교)	16.2 (168)				19.6( 33)	25.6( 43)	54.8( 92)
	무교	38.6 (402)				18.4( 74)	22.9( 92)	58.7(236)
	기타	3.6 (37)				13.5( 5)	29.7( 11)	56.8( 21)

\*\* p < 0.01

표43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活動觀 58.5%, 快樂觀 22.6%, 修養觀 18.9%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양관과 쾌락관에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활동관에서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일관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종교에 따라서도 有意한 차이는 없으나 修養觀에서 천주교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반면 快樂觀에서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 4) 職業의 貴賤

직업에 대한 귀천에는 어떠한 價値指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의 귀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1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時間觀이며 答紙 ①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다. 過去指向, ②지금은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이 따로 없다. 現在指向, ③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다를 未來指向으로 보고 반응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44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現在指向 45.0%, 未來指向 39.2%, 過去指向 1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나 남학생은 과거지향에서 여학생은 현재지향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른 일관된 차이는 없으나 現在指向에서 저학년일 수록, 未來指向에서는 고학년일 수록 약간 높게 반응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現在指向에서 천주교(55.4%)가 기타교(37.9%)에 비해 높게, 未來指向에서는 천주교가 낮은 반면 기타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5) 職業觀의 綜合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직업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 본 職業의 必要性,

표 44. 職業의 貴賤.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 <sup>2</sup>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5.8(164)	45.0(468)	39.2(408)
성별	남	50.3 (523)	3.386	2	0.184	17.8( 93)	43.2(226)	38.0(204)
	여	49.7 (517)				13.7( 71)	46.8(241)	39.5(204)
학년별	1학년	34.2 (356)	4.604	4	0.330	16.0( 57)	48.9(174)	35.1(125)
	2학년	32.6 (339)				15.3( 52)	44.2(150)	40.4(137)
	3학년	33.2 (345)				15.9( 55)	41.8(144)	42.3(146)
종교별	불교	32.8 (341)	10.190	8	0.050*	16.4( 56)	44.6(152)	39.0(133)
	천주교	8.8 (92)				18.5( 17)	55.4( 51)	26.1( 24)
	기독교(개신교)	16.2 (168)				12.5( 21)	46.4( 78)	41.1( 69)
	무교	38.6 (402)				16.2( 65)	43.0(173)	40.8(164)
	기타	3.6 (37)				13.5( 5)	37.9( 14)	48.6( 18)

\* p<0.05

職業의 選擇, 일의 選擇, 職業의 貴賤 등에서 나타난 價値指向을 종합적으로 통합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45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動的價値觀 55.0%, 中庸的價値觀 33.8%, 靜的價値觀 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직업관은 靜的價値觀 보다는 動的價値觀과 中庸的價値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적 가치관(남 12.5%, 여 9.8%)과 중용적가치관(남 35.8%, 여 31.8%)에서 남학생이 높게, 동적가치관(남 51.7%, 여 58.4%)에서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과 종교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職 業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22.422	9	** 0.007	12.5(262)	35.8(748)	51.7(1082)
	여	49.7 (2068)				9.8(203)	31.8(658)	58.4(1207)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14.183	18	0.717	11.3(161)	33.6(478)	55.1(785)
	2학년	32.6 (1356)				11.0(149)	34.8(472)	54.2(735)
	3학년	33.2 (1380)				11.2(155)	33.0(456)	55.8(769)
종 교 별	불 교	32.8 (1364)	29.620	36	0.764	11.4(156)	32.3(441)	56.3(767)
	천주교	8.8 (368)				13.3( 49)	34.0(125)	52.7(194)
	기독교 (개신교)	16.2 (672)				10.6( 71)	33.6(226)	55.8(375)
	무 교	38.6 (1608)				10.9(175)	34.7(559)	54.4(874)
	기 타	3.6 (146)				9.5( 14)	37.2( 55)	53.4( 79)
전 체	100 (12480)				11.2(1395)	33.8(4218)	55.0(6867)	

\*\* p<0.01

## 8. 經 濟 觀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 속에는 어떠한 價値指向의 傾向을 보이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勤儉生活, 돈의 價値, 돈에 대한 欲求, 貯蓄生活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勤 儉 生 活

근검생활에 나타난 價値指向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집 형편에 비하여 자신이 쓰는 돈이나 물건은 어느 정도입니까?”(32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활동관이며 答紙 ①아껴쓰는 편이다.

修養觀, ②알맞게 쓰는 편이다.快樂觀, ③많이 쓰는 편이다를 活動觀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표 46. 勤儉生活.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8.1(188)	50.0(520)	31.9(332)
성별	남	50.3 (523)	1.506	2	0.470	16.8( 88)	49.9(261)	33.3(174)
	여	49.7 (517)				19.3(100)	50.1(259)	30.6(158)
학년별	1학년	34.2 (356)	8.704	4	0.068	21.9( 78)	48.9(174)	29.2(104)
	2학년	32.6 (339)				13.6( 46)	52.7(179)	33.7(114)
	3학년	33.2 (345)				18.6( 64)	48.4(167)	33.0(114)
종교별	불교	32.8 (341)	4.952	8	0.762	18.8( 64)	50.4(172)	30.8(105)
	천주교	8.8 (92)				12.0( 11)	55.4( 51)	32.6( 30)
	기독교(개신교)	16.2 (168)				17.9( 30)	45.8( 77)	36.3( 61)
	무교	38.6 (402)				18.7( 75)	50.0(201)	31.3(126)
	기타	3.6 (37)				21.6( 8)	51.4( 19)	27.0( 10)

표46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쾌락관 50.0%, 활동관 31.9%, 수양관에 18.1%의 반응을 보여 제주도민의 근검, 절약 정신이 고등학생들에게는 많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 학년별, 종교별에 따른 有意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천주교를 믿는 학생이 수양관에서 약간 낮게, 기독교를 믿는 학생은 쾌락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2) 돈의 價値

돈에 대한 가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 세상에서 돈이 어느 정도 소중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33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활동관이며 答紙 ①돈 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 修養觀, ②명예와 돈이 같은

표 47. 돈의 價値.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sup>2</sup>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①	②	③
전 체		100 (1040)				19.4(202)	50.4(524)	30.2(314)
성 별	남	50.3 (523)	26.005	2	*** 0.001	24.9(130)	43.6(228)	31.5(165)
	여	49.7 (517)				13.9( 72)	57.2(296)	28.9(149)
학 년 별	1학년	34.2 (356)	26.560	4	*** 0.001	21.1( 75)	55.9(199)	23.0( 82)
	2학년	32.6 (339)				21.8( 74)	50.4(171)	27.8( 94)
	3학년	33.2 (345)				15.4( 53)	44.6(154)	40.0(138)
종 교 별	불 교	32.8 (341)	11.511	8	0.174	19.9( 68)	52.2(178)	27.9( 95)
	천주교	8.8 (92)				20.7( 19)	54.3( 50)	50.0( 23)
	기독교(개신교)	16.2 (168)				23.2( 39)	54.2( 76)	31.4( 53)
	무 교	38.6 (402)				17.2( 69)	48.8(196)	34.0(137)
	기 타	3.6 (37)				18.9( 7)	64.9( 24)	16.2( 6)

\*\*\* p < 0.001

정도로 중요하다. 快樂觀, ③명예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活動觀으로 보고 分析하였다.

표47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快樂觀 50.4%, 活動觀 30.2%, 修養觀 19.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예(수양관)보다 돈(활동관)이 더 중요하다는 쪽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물질만능 선호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배경변인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修養觀에서는 남학생(24.9%)이 여학생(13.9%)보다 높게, 快樂觀에서는 남학생(43.6%)보다 여학생(57.2%)이 높게, 活動觀에서는 남학생

(31.5%)이 여학생(28.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는데 수양관에서는 1,2학년은 비슷하나 3학년에서 약간 낮게, 쾌락관에서는 저학년(1학년 55.9%, 2학년 50.4%, 3학년 44.6%)일 수록 높게, 활동관에서는 고학년(1학년 23.0%, 2학년 27.8%, 3학년 40.0%)일 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일관된 차이는 없으나 快樂觀에서 기타교가 높게, 活動觀에서는 기타교는 낮은 반면 무교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돈에 대한 欲求

돈에 대한 욕구에서 나타나는 가치지향은 어떤지를 알기 위하여 “어른이 되면 돈을 어느정도 벌려고 생각하십니까?”(34번)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活動觀이며 答紙 ①의식주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修養觀, ②편리한 문화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快樂觀, ③큰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을 만큼을 活動觀으로 보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48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快樂觀 69.4%, 活動觀 15.7%, 修養觀 1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데 수양관에서 남학생(18.9%)이 여학생(10.8%)보다 높게, 쾌락관에서는 남학생(62.5%)보다 여학생(76.4%)이 높게, 활동관에서는 남학생(18.6%)이 여학생(1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비하여 수양관에서 기타교와 불교가 약간 높게, 쾌락관에서는 불교와 기타교가 약간 낮게, 활동관에서는 불교가 약간 높게 반응하고 있다.

표 48. 돈에 대한 欲求.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14.9(155)	69.4(722)	15.7(163)
성별	남	50.3 (523)	24.422	2	*** 0.001	18.9( 99)	62.5(327)	18.6( 97)
	여	49.7 (517)				10.8( 56)	76.4(395)	12.8( 66)
학년별	1학년	34.2 (356)	4.787	4	0.309	15.5( 55)	69.8(249)	14.7( 52)
	2학년	32.6 (339)				16.2( 55)	70.2(238)	13.6( 46)
	3학년	33.2 (345)				13.0( 45)	68.2(235)	18.8( 65)
종교별	불교	32.8 (341)	19.250	8	* 0.013	18.2( 62)	61.3(209)	20.5( 70)
	천주교	8.8 (92)				13.0( 12)	76.1( 70)	10.9( 10)
	기독교(개신교)	16.2 (168)				13.1( 22)	72.0(121)	14.9( 25)
	무교	38.6 (402)				12.7( 51)	74.1(298)	13.2( 53)
	기타	3.6 (37)				21.6( 8)	64.9( 24)	13.5( 5)

\* p<0.05      \*\*\* p<0.001

#### 4) 貯蓄生活

저축생활에 나타난 價値指向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축은 어떤 이유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35번)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문항에 내포된 관련모형은 時間觀이며 答紙 ①전 부터 계속해서 하던 일이므로, 過去指向, ②쓰고 남는 돈이 있으므로, 現在指向, ③미래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를 未來指向으로 보고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49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未來指向 85.4%, 現在指向 10.0%, 過去指向 4.6% 순으로 나타나 미래생활에 많은 학생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지향에서는 남학생(6.1%)이 여학생(3.1%)보다 높게, 현재

지향에서도 남학생(13.0%)이 여학생(7.0%)보다 높게, 미래지향에서는 여학생(89.9%)이 남학생(80.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지향에서는 비슷하며 현재지향에서 2학년이 낮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래지향에서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過去指向에는 기독교(3.6%)와 무교(3.2%)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타교(8.1%)가 약간 높게, 現在指向에서는 기타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未來指向에서는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종교를 믿는 학생과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학생의 저축생활에 나타난 가치지향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9. 貯蓄生活.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chi^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 (1040)				4.6( 48)	10.0(104)	85.4(888)			
성별	남	50.3 (523)	17.846	2	*** 0.001	6.1( 32)	13.0( 68)	80.9(423)			
	여	49.7 (517)							3.1( 16)	7.0( 36)	89.9(465)
학년별	1학년	34.2 (356)	9.654	4	* 0.046	4.2( 15)	11.2( 40)	84.6(301)			
	2학년	32.6 (339)							4.1( 14)	6.2( 21)	89.7(304)
	3학년	33.2 (345)							5.5( 19)	12.5( 43)	82.0(283)
종교별	불교	32.8 (341)	16.376	8	* 0.037	5.9( 20)	11.1( 38)	83.0(283)			
	천주교	8.8 (92)							6.5( 6)	7.6( 7)	85.9( 79)
	기독교(개신교)	16.2 (168)							3.6( 6)	8.9( 15)	87.5(147)
	무교	38.6 (402)							3.2( 13)	8.7( 35)	88.1(354)
	기타	3.6 (37)							8.1( 3)	24.3( 9)	67.6( 25)

\*  $p < 0.05$     \*\*\*  $p < 0.001$

5) 經濟觀의 綜合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경제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勤儉生活, 돈의 價値, 돈에 대한 欲求, 貯蓄生活에서 나타난 가치지향을 종합적으로 통합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50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中庸的價値觀 45.0%, 動的價値觀 40.8%, 靜的價値觀 14.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0. 經 濟 觀.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 <sup>2</sup>	df	유의도	반 응 구 분		
						정적가치관	중용적가치관	동적가치관
성 별	남	50.3 (2092)	27.609	8	*** 0.001	16.7(349)	42.2(884)	41.1(859)
	여	49.7 (2068)				11.8(244)	47.7(986)	40.5(838)
학 년 별	1학년	34.2 (1424)	25.253	16	0.065	15.7(223)	46.4(662)	37.9(539)
	2학년	32.6 (1356)				13.9(189)	45.0(609)	41.1(558)
	3학년	33.2 (1380)				13.1(181)	43.4(599)	43.5(600)
종 교 별	불 교	32.8 (1364)	35.25	32	0.316	15.7(214)	43.8(597)	40.5(553)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8.8 (368)				13.0( 48)	48.4(178)	38.6(142)
		16.2 (672)				14.4( 97)	43.0(289)	42.6(286)
	무 교	38.6 (1608)				12.9(208)	45.4(730)	41.7(670)
	기 타	3.6 (146)				17.6( 26)	51.4( 76)	31.0( 46)
전 체		100 (12480)				14.3(1779)	45.0(5610)	40.8(5091)

\*\*\* p<0.001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0.001 수준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靜的價値觀에서 남학생(12.5%)이 여학생(9.8%)보다 약간 높게, 中庸的價値觀에서도 남학생(35.8%)이 여학생(31.8%)보다 약간 높게, 動的價値觀에서는 여학생(58.4%)이 남학생(5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여성이 강한 생활력은 여고생들에게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 종교별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價値觀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의 方向과 價値觀 教育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目的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文獻調查研究와 質問紙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표집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실업계, 남·여 고등학교 각 학년 1 학급씩 총 8개 학교 24개 학급 1200명을 무작위 추출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1,139부를 회수, 그 중 성의가 없이 응답한 것을 제외시켜 1,040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내용은 家庭觀, 教育觀, 人生觀, 道德觀, 社會觀, 人間觀, 職業觀, 經濟觀 등 8개 영역에 대하여 영역별 4문항씩 총 32문항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 결과는 “分析을 위한 價値模型”에 따라 문항별 분석과 영역별 분석을 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성별, 학년별, 종교별로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百分比(%)와  $\chi^2$ 檢證이다.

영역별 분석결과를 보면 가정에 대한 의식속에는 靜的價値觀 50.2%, 動的價値觀 32.4%, 中庸的價値觀 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値觀 39.2%, 靜的價値觀 30.5%, 中庸的價値觀 3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인생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値觀 51.5%, 靜的價値觀 25.6%, 中庸的價値觀 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학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덕에 대한 의식속에는 靜的價値觀 47.0%, 中庸的價値觀 30.3%, 動的價値觀

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별, 종교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值觀 48.4%, 靜的價值觀 30.7%, 中庸的價值觀 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만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간에 대한 의식속에는 中庸的價值觀 42.0%, 動的價值觀 34.0%, 靜的價值觀 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만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值觀 51.7%, 中庸的價值觀 31.8%, 靜的價值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만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속에는 中庸的價值觀 42.2%, 動的價值觀 41.1%, 靜的價值觀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만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모든 영역의 가치관이 一貫된 경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靜的價值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가정관과 도덕관이며, 中庸的價值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경제관과 인간관이며, 動的價值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교육관, 인생관, 사회관, 직업관등이다. 즉 가정에 대한 의식과 도덕에 대한 의식 속에는 順應, 修養, 縱的價值指向, 過去指向의 靜的價值觀이 많이 나타나 있어 도덕의식 속에는 전통적 윤리의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생활과 인간에 대한 의식속에는 快樂, 現在指向, 調和, 平等·橫的關係指向으로써 中庸的價值觀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의식속에는 動的價值觀에도 비슷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극심한 價值葛藤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教育, 人生, 社會, 職業에 대한 의식 속에는 活動觀, 個人主義, 主體觀, 未來指向의 動的價值觀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여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근대적이고 진취



적인 動的價値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도 면에서는 人生觀과 職業觀에서만 50%를 넘고 있어서 나머지 가치관 영역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價値葛藤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소득의 증대로 價値葛藤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므로 價値探究教育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人生觀, 社會觀, 人間觀, 職業觀, 經濟觀이며, 학년별에 따라서는 人生觀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價値探究教育은 이러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도 참고로 하여 제주 특유의 바람직한 전통사회적 성격을 유지시키면서 能率性和 合理性을 중요시하는 發展指向的 인간상의 실현에 두어야 할 것이다.

教育 方法面에서는 종래의 價値注入式 他律的 方法을 지양하여 價値探究式 自律的 方法이 필요할 것이며, 教育 內容面에서는 기존의 가치질서를 유지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복잡한 價値葛藤을 자기 자신이 극복 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價値探究教育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교육기관, 매스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모든 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價値觀은 歷史的인 傳統과 文化的인 傳承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도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韓 國 文 獻

#### < 단행본 >

- 金蘭洙(1966), 「教育調査의 技術」, 現代教育叢書出版社.
- 金鍾喆(1970), 「教育行政의 理論과 實際」, 教育科學社.
- 金泰吉(1973), 「인간회복의 序章」, 삼성문화재단.
- 朴容憲(1970), 「態度와 價値觀의 研究」, 培英社.
- 李祥雨(1983), 「現代人の 精神建康」, 培英社.
- 鄭範模(1973), 「價値觀과 教育」, 培英社.
- 鄭世九(1988), 「價値·態度教育의 理論과 實際」, 培英社.
- 陳元重(1972), 「教育 社會學 原論」, 法文社.
- 車京守(1977), 「産業社會의 教育問題」, 培英社.
- 黃禎奎(1972), 「教育 評價」, 培英社.
- 洪承稷(1972), 「知識人の 價値觀 研究」, 三英社.

#### < 論 文 >

- 姜大烈(1985), “青少年的 價値觀에 對한 比較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尙大學校 大學院.
- 金大潤(1984), “高等學生들의 價値觀 變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 金仁子, 黃應淵(1974), “韓國 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社會問題研究」, 西江大學校 社會問題 研究所.
- 文龍麟(1987), “價値觀의 測定 및 評價,” 「情意的 特性의 評價方法」, 中央教育 評價院.

- 朴賢淑(1976), “韓國女高生の 價値觀,”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教育大學院.
- 申憲植(1970), “高等學校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 申鉉大(1989), “忠清北道 高等學生의 價値觀 研究,” 碩士學位論文, 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
- 李琦勳(1980), “高校生の 價値觀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李秉珠(1990), “高校生과 學父母의 價値觀에 관한 比較研究,” 碩士學位論文, 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
- 李鍾昇(1980), “大學生の 價値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 忠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 趙鏞振, 洪德昌(1975), “忠南地域 住民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論文集」, 2권 1호, 忠南大 人文科學研究所.
- 河石鎬(1982), “中學生의 意識속에 나타난 價値觀에 관한 一考察,”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 洪承稷(1969),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韓國社會科學 研究」, 제 10卷, 아세아 문제연구소.

## 2. 西洋文獻



- Davis, K.(1947), *Human Society*, The Macmillian co.
- Kluckhohn, F.R, & Strodtbeck.F.L.(1961),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Row, Peterson and co.
- Newcomb, T.M.(1950), *Socail Psych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es*, Free Press.
- William, R.M.(1952), *American Society*, Alfred A.Knopf.

<Summary>

## A Study on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An, Young-Ick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fundamental informations for the teaching of values and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For this, 1040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 in Cheju-city and Seogwipo-city, were chosen and questioned on 8 fields ---- the view of home, education, life, morality, man, society, jobs, and economy. All the data were calculated with the percentage ratio and  $\chi^2$  - test to clarify the differences of the view of value according to their sex, grade and religion.

The results from such a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for the view of home, it contained its static view(50.2%), its dynamic view(32.4%), and its neutral view(17.4%). There was nothing in the differences of its view according to their sex, grade and religion.

2. As for the view of education, it contained its dynamic view(39.2%), its static view(30.5%) and its neutral view(30.3%). There was also nothing in the differences of its view according to their sex, grade and religion.

3. As for the view of life, it contained its dynamic view(51.5%), its static view(25.6%) and neutral view(22.9%). These was something in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differences of its view according to their sex( $p < 0.01$ ) and grade( $p < 0.05$ ).

4. As for the view of morality, it contained its static view(47.0%), its neutral view(30.3%) and its dynamic view(23.0%). There was nothing in the differences of its view according to their sex, grade and religion.

5. As for the view of society, it contained its dynamic view(48.4%), its static view(30.7%) and its neutral view(20.9%). It showed the differences of its view only according to their sex( $p < 0.05$ ).

6. As for the view of man, it contained its neutral view(42.0%), its dynamic view(34.0%) and its static view(24.0%). It showed the differences of its view only according to their sex( $p < 0.001$ ).

7. As for the view of jobs, it contained its dynamic view(51.7%), its neutral view(35.5%) and static view(12.5%). It also showed the differences of its view only according to their sex( $p < 0.001$ ).

8. As for the view of economy, it contained its neutral view(42.2%), its dynamic view(41.4%) and its static view(16.7%). It showed the discord of its view and differences of its view according to their sex( $p < 0.001$ ).

As stated above, their inclination to the static view was high expressed in the view of man and morality, the neutral view in the view of economy and man, and the dynamic view in the view of education, life, society and jobs, and so on. As the result, we are to put emphasises on being a human being who has a bright future and cherishes efficiency and rationalism. In addition, we are to preserve Cheju-Do's own desirable tradition in teaching Cheju high school students a study of value inquiry.

In teaching value inquiry, its education has to be accomplished naturally with home, 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and massmedia. It is desirable to study values not fragmentarily but lastingly and extensively.

## 질문지

본 질문지는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하여 올바른 가치탐구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는데 이바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지는 정답을 가려 내려는 시험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바를 조사 연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신상에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직 학술적 목적에만 사용되오니 성실한 답을 주시어 교육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안영익.

◎ 응답요령 : 각 문항을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하나만 골라 ( )에 “V” 표를 하시면 됩니다.

1. 한 집(가정)에서 몇 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  
 ( ) ① 3대      ( ) ② 2대      ( ) ③ 1대

2. 아버지(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 ) ①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시는 일  
 ( ) ②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  
 ( ) ③ 우리들(자녀)을 믿고 간섭하지 않는 일

3. 가정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  
 ( ) 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보금자리이다.  
 ( ) ② 의식주가 해결되는 생활의 터전이다.  
 ( ) ③ 사회생활의 기초를 익히는 배움의 터전이다.

4.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만족하게 생각하면 “만족한 이유”중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불만스러운 이유”중에서 하나만 고르시오.

4-1 <만족한 이유>	4-2 <불만스러운 이유>
( ) ① 가족이 화목하기 때문 ( ) ② 생활형편이 넉넉하기 때문 ( ) ③ 가족이 나를 믿어 주므로	( ) ① 가정의 질서가 없기 때문 ( ) ②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 ( ) ③ 가족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6.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① 바르게 사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 ( ) ② 취직하는데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 ( ) ③ 취미와 소질을 찾아 더욱 키우기 위해서
7. 집에서 공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① 부모나 선생님이 시키기 때문에 공부한다.
  - ( ) ② 형(언니, 누나, 오빠)의 충고를 듣고서 공부한다.
  - ( ) ③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공부한다.
8. 공부를 잘 하고 못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① 타고난 머리(지능)
  - ( ) ② 가정환경
  - ( ) ③ 자신의 노력
9. 어떤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
- ( ) ① 말씀과 행동이 바른 선생님
  - ( ) ② 학생에게 친절한 선생님
  - ( ) ③ 실력이 많은 선생님
10. 장래의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
- ( ) ①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는 것
  - ( ) ② 돈이나 권력있는 사회 지도자가 되는 것
  - ( ) ③ 학문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개척자가 되는 것
11.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
- ( ) ① 착한 일을 하고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 ( ) ② 교과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을 때
  - ( ) ③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였을 때
12.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① 타고난 운명이다.
  - ( ) ②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은 바꿀 수 있다.
  - ( ) ③ 인간의 노력으로 거의 결정된다.
13. 평소의 생활에서 어느 것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① 공중도덕
  - ( ) ② 법(교칙, 교통규칙 등)
  - ( ) ③ 자신의 양심
14. 늙으신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① 큰 아들이 모셔야 한다.
  - ( ) ② 아들 모두가 생활비를 드리고 부모님데로 사시게 한다.

( ) ③ 돈이 가장 많은 아들이 모셔야 한다.

15. 학교 밖에서 내가 인사하는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분이십니까 ?

- ( ) ① 우리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
- ( ) ② 우리반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
- ( ) ③ 나에게 친절한 선생님

16. 어른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까 ?

- ( ) ① 모든 어른 앞에서 조심하는 편이다.
- ( ) ② 나를 아는 어른 앞에서만 조심하는 편이다.
- ( ) ③ 별로 조심하지 않는 편이다.

17. 나쁜 짓을 하는 학생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① 학교나 경찰에 알리어 벌을 받게 하겠다.
- ( ) ②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도록 충고하겠다.
- ( ) ③ 나와 관계없는 일이면 상관하지 않겠다.

18.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이유”중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유”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18-1 <자랑스러운 이유>	18-2 <부끄러운 이유>
( ) ①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므로	( ) ① 우리 전통이 자꾸 사라져 가므로
( ) ② 국민 모두가 잘 살기에	( ) ②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지 못하므로
( ) ③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에	( ) ③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으므로

20.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성공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① 가장 배경이 좋은 사람
- ( ) ② 사교성이 좋은 사람
- ( ) ③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21. 어떤 나라가 가장 부러우신가요 ?

- ( ) ① 영국처럼 역사와 전통을 숭상하는 나라
- ( ) ② 스위스처럼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 ( ) ③ 덴마크처럼 국민의 개척정신이 강한 나라

22. 제주도에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만족하면 “만족한 이유”,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불만스러운 이유” 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22-1 만족한 이유	22-2 불만스러운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② 사람들이 순박하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③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① 육지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②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③ 능력을 펴 볼 기회가 적기 때문

24. 자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 ① 인간은 자연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 ②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며 살아야 한다.
- ③ 인간은 자연을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

25. 여자가 결혼한 후에 직장(사회)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반대한다.
- ②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 ③ 찬성한다.

26.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까 ?

- ① 예의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
- ② 친절하고 명랑한 사람
- ③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사람

27. 누구와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고 있습니까 ?

- ① 부모님과의 약속
- ② 친구와의 약속
- ③ 내 자신과의 약속(결심)

28. 직업은 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놀고 먹으면 최악이므로
- ②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므로
- ③ 사람은 활동해야 하므로

29. 이 다음에 어떤 직장을 택하고 싶습니까 ?

- ① 옛부터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
- ② 수입(월급)이 많은 직업
- ③ 취미와 소질을 펴 볼 수 있는 직업

30. 월급(수입)이 같을 때 어떤 직업을 택하시겠습니까 ?

- 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

- ( ) ② 간단하고 쉬운 일  
 ( ) ③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31. “직업의 귀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다.  
 ( ) ② 지금은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이 따로 없다.  
 ( ) ③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다.
32. 우리집 형편에 비하여 자신이 쓰는 돈이나 물건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① 아껴쓰는 편이다.  
 ( ) ② 알맞게 쓰는 편이다.  
 ( ) ③ 많이 쓰는 편이다.
33. 현 세상에서 돈이 어느정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돈 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  
 ( ) ② 명예와 돈이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  
 ( ) ③ 명예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
34. 어른이 되면 돈을 어느 정도 벌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의식주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 ) ② 편리한 문화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 ) ③ 큰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을 만큼
35. 저축은 어떤 이유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부터 계속해서 하던 일이므로  
 ( ) ② 쓰고 남는 돈이 있으므로  
 ( ) ③ 미래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36. 성별 : ( ) ① 남 ( ) ② 여
37. 학년별 : ( )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38. 종교별 : ( ) ① 불교 ( ) ② 천주교 ( ) ③ 기독교(개신교)  
 ( ) ④ 무교 ( ) ⑤ 기타교